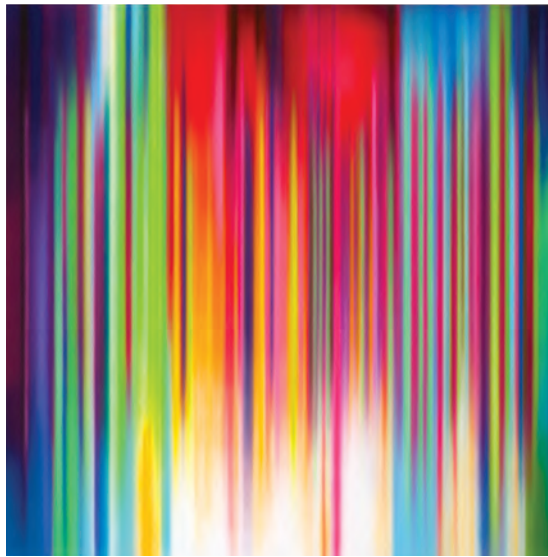


cover artist

Tim Baving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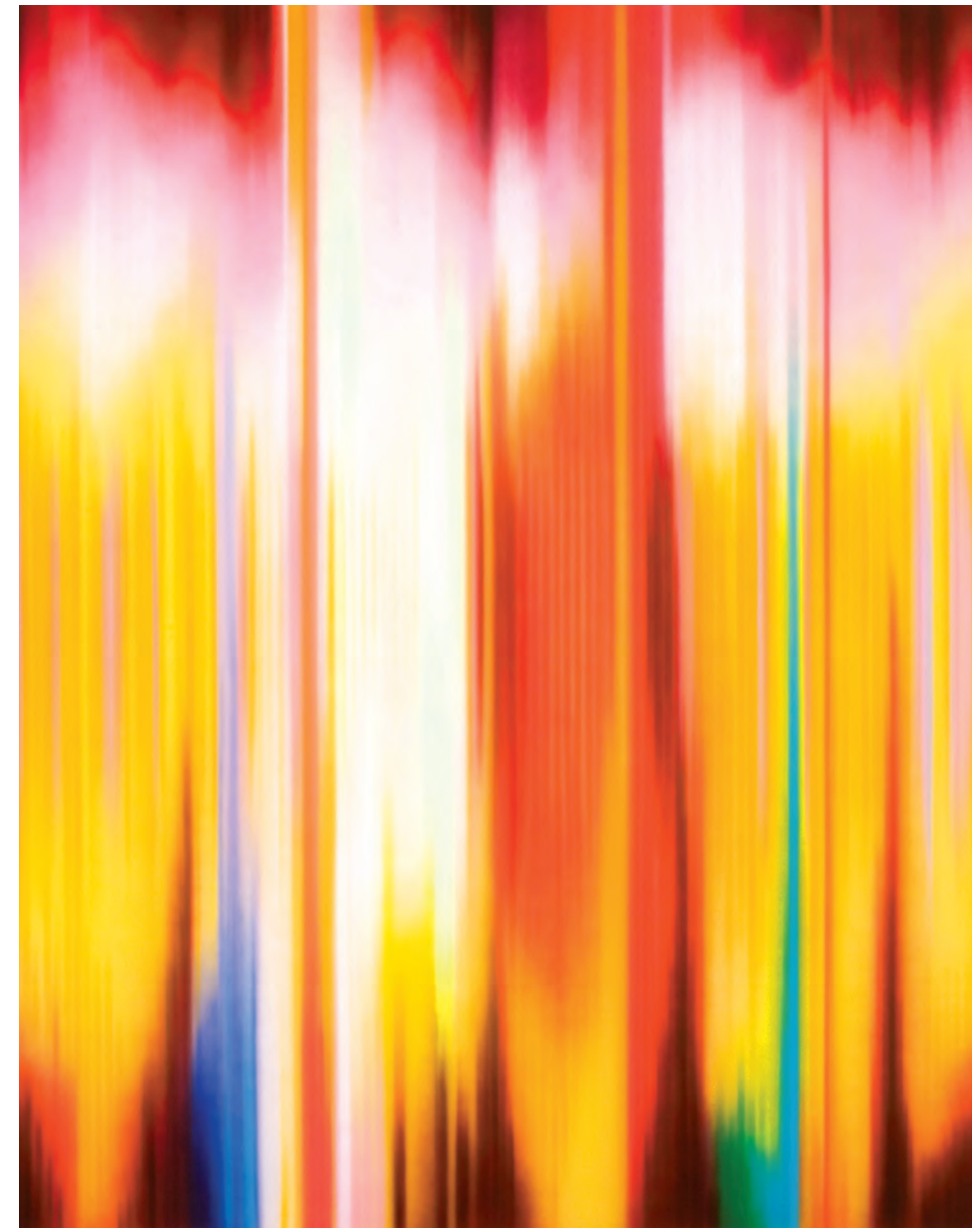
팀 바빙턴



영국에서 태어나 라스베이거스에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 팀 바빙턴은 전통적 양식에 자유로운 스프레이 페인팅을 이용해 온 화면을 스트라이프로 채운다. 단순할 것만 같은 줄무늬가 역동적인 빛을 연상시키며 음악의 선율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 듯 색채와 빛의 하모니를 만든다. 그가 소리와 음악을 시각예술로 옮기는 과정은 음악가가 악보에 음표를 그려 넣어 머릿속의 소리를 옮기는 행위예술과 닮았다. “종이 위의 음표들은 매우 엄격하고 정확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 연주자들에 의해 구현되는 것을 보면 결과는 천차만별이지요.” 악장을 읽듯이 긴 화면을 채우는 컬러 스트라이프의 단위를 따라가다 보면 팀 바빙턴이 작품에 심어 놓은 시각적 음악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아주 좋은 날

AJU BIENNIAL MAGAZINE
2019 NEW YEAR • VOLUME 52



귀에서 눈으로 번역되는 시각예술

팀 바빙턴Tim Bavington은 기타 솔로와 멜로디, 베이스 라인을 세로줄로 변형시켜 음악을 귀에서 눈으로 번역하는 시각예술가다. 라스베이거스 심포니공원에 설치된 작품 '파이프드림Pipe Dream'은 20세기 미국 클래식 작곡가인 에런 코플랜드Aaron Copland가 1942년에 발표한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 Fanfare for the Common Man'의 악보를 시각화했다. 밀음은 파란색 또는 녹색, '레'음은 주황색, '파'음은 마젠타 컬러로 칠하고, 마지막 파이프에는 도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심표를 표현했다. 보통 사람을 위해 존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작품을 의뢰한 스미스센터의 의도처럼 이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야외 무대 역할을 하고 있다.

Pipe Dream, Enamel Paint on Steel, Smith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Las Vegas, NV, 2012

앞표지. Up in Suze's Room, Synthetic Polymer on Canvas, 120x96 inches, 2009

뒷표지. Heart Above Head, Synthetic Polymer on Canvas, 32x32 inches, 2011

나만의 감성, 새로운 흐름이 되다

나만이 느끼는 것 같은 낯선 감정이 때로는 자극과 영감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공감을 받지 못할 생각으로 마음 한 구석에 치워 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상을 끌어내는 동력으로 삼는 것이지요. 롤랑 바르트의 저서 『카메라 루시다』에 ‘푼크툼Punctum’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푼크툼은 ‘찌름’을 뜻하는 라틴어 ‘Punctionem’에서 유래한 말로, 뜻 그대로 화살처럼 찢어오는 어떤 강렬함을 의미합니다. 롤랑 바르트는 사진을 볼 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요소인 스튜디오 Studium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의 가슴을 찢르는 그 느낌을 가리켜 푼크툼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호 「아주좋은날」에서는 나만의 감성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런 감성을 발전시켜 용기와 도전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 반짝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자신의 개성을 새로움의 경지로 끌어올린 스토리를 통해 각자의 고유함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CONTENTS

Section 1. Art & Life	gallery 나만의 감성, 새로운 흐름이 되다	02
	opinion 파동 + 파동 = 조화롭고 아름다운 물결	10
	insight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인간을 발견하다	12
	people 고전을 새롭게 발견하는 손끝,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16
	curation 1 클래식은 영원하다, 레트로 운동화	20
Section 2. Now & Moment	culture and the city 새로 발견한 태국의 매력, 치앙라이	22
	special free time 줄여도 맛있다, 글루텐프리 비건 베이킹	28
	favorite things 보자기로 감싸 둔 무궁무진한 이야기, 호호당 대표 양정은의 여가식미餘暇食美	32
	scene of object 추억을 저장하는 방법, 〈러브레터〉속 폴라로이드 카메라 SX-70	36
	curation 2 스마트 시대를 연결하는 차세대 이동 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38
Section 3. Aju & Style	aju story 콘크리트, 상상은 현실이 된다	40
	aju spirit 협업의 시대, 모두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	44
	aju news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48
	reader's view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52

with music



W. A. MOZART - The Violin Sonatas
ACCENT, CD, 2018

Mozart Violin Sonata K. 301 in G major

2019년 『아주좋은날』이 독자와 함께 듣고 싶은 곡은 이번 호 ‘People’ 지면에서 만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씨의 추천곡입니다. 임지영 씨는 “이 곡은 모차르트가 스물두 살에 작곡한 곡으로, 제가 스물두 살에 녹음한 첫 앨범에 수록한 곡이기도 합니다. 그 시기의 젊고 파릇파릇한 느낌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곡을 찾다가 모차르트가 저와 같은 나이에 작곡한 이 곡을 앨범의 첫 번째 트랙으로 넣었습니다”라고 추천했습니다. 상쾌하고 산뜻한 모차르트의 음악을 함께 들으며 2019년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The Queen Elisabeth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Jiyoung Lim - Sonata n18 in G major K. 301

Art & Life

“세상과 확실한 관계를 맺는 데에는 예술을 통하는 것이 가장 좋다.”

괴테

예술, 더 가까이

예술은 권태롭게 반복되는 일상에 자극을 줍니다. 매일 보던 수백 층 고층 건물에서 숲에 온 듯 우거진 나무를 발견할 때, 잡초와 구름뿐인 넓은 들판에서 바람이 내는 뜻밖의 화음을 듣게 될 때,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대자연 한가운데에서 첨단기의 문명을 만날 때, 일상적인 물건에 조형적 아름다움이 더해져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정형화된 삶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 예술을 통해 위안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생활의 자극을 원천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해 낸 예술가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을 통해 우리 또한 새로운 사고와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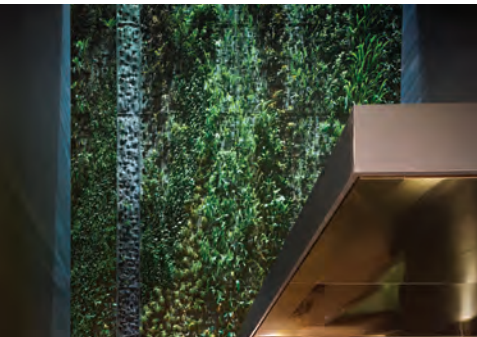
© Roland Halbe - DNP Tower

VERTICAL GARDEN

수직의 도시에서 우연히 만난 식물 회화, 수직정원

파트리크 블랑Patrick Blanc은 수직으로 세워진 도시 건물에 식물을 뒤덮는 프로젝트로 유명한 프랑스의 식물학자다. 열대어와 식물을 좋아하는 소년이었던 블랑은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1986년 공공건물 외벽에 식물을 심는 작업을 선보였다.

www.verticalgardenpatrickblanc.com



초고층 빌딩이 모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시원한 초록의 회화가 펼쳐진다. 눈앞의 모습이 그림인지 아닌지, 저 식물은 진짜인지 아닌지, 순간 머릿속이 혼란하다. 초현실적인 풍경의 정체는 정원이다. ‘수직정원’이라 하는 이 정원은 프랑스의 식물학자 파트리크 블랑이 고안했다. 30여 년 전 블랑이 TV와 라디오에 출연해 수직정원을 설명할 때만 해도 귀담아듣는 사람이 없었지만, 빠르게 들어찬 건물로 녹지를 만들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그는 전 세계가 찾는 예술가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서울시청에 축구장 3분의1 크기의 수직정원이 조성되어

『기네스북』에 올랐다. 2018년 부산현대미술관 외벽 작업을 위해 한국을 찾은 블랑은 부산에 머물며 지역의 생태와 식물을 철저히 연구한 후 울릉도의 식물을 포함한 자생이 가능한 식물 175종 4만여 본을 심었다. 빛의 방향, 양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성 펠트를 덧씌워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수직정원은 하나의 작은 생태계가 만들어져 한 번 조성하면 수십 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블랑은 말한다. “수직정원은 일부러 들어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하는 존재예요. 사람들을 즐겁게 놀라게 하는 일종의 회화인 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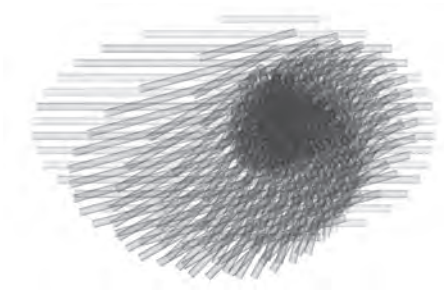
© JayHunt10 - Singing Ringing Tree

SINGING RINGING TREE

바람이 완성하는 예술, 노래하는 나무



나선형으로 겹쳐 놓은 서로 다른 길이의 파이프가 바람의 에너지를 포착해 바람에 따라 특별한 사운드가 발생한다. 이 멋진 자연의 멜로디는 시간당 169km까지 울려 퍼진다. QR 코드를 통해 바람이 완성하는 멜로디를 들어 보는 건 어떨까.
www.tonkinliu.co.uk



© Tonkin Liu - top structure

영국 랭커셔Lancashire의 페나인Pennine 언덕에는 나무를 닮은 강철 조각품이 있다. 바람에 날리는 듯, 소용돌이 치는 듯 서 있는 이 조각의 이름은 ‘노래하는 나무’다. 아연 강철 파이프를 겹쳐 놓은 높이 3m의 나무는 바람이 불면 이름처럼 노래를 부른다. 서로 다른 길이의 파이프에 바람이 통과하면서 의도치 않은 화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바람이 적게 부는 날에는 한적한 시골 풍경과 어울리는 은은한 소리를, 세게 부는 날에는 강렬하고 경쾌한 멜로디를 들려준다. 영국의 건축가 마이크 톤킨Mike Tonkin과 애나 류Anna Liu가 디자인한 이 작품은 패놉티콘

Panoptic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했다. 패놉티콘은 동부랭커셔한 경예술네트워크가 21세기 랜드마크를 세워 이 지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한 지역 재생 프로젝트다. ‘노래하는 나무’가 있는 언덕에 올라서면 북쪽으로는 펜들 언덕의 멋진 경치가, 동쪽으로는 요크셔 경계선의 풍력 터빈이, 그 사이에는 번리 지역의 파노라마 같은 도시 전경이 펼쳐진다. 이 지역에 새로운 풍경을 선사한 ‘노래하는 나무’는 2007년 영국 왕립건축가협회를 받았다. 그리고 2017년 3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외곽의 마노라는 작은 마을에는 두 번째 나무가 세워졌다.



SKÝLI

등산객을 위한 유토피아, 스카일리

스웨덴의 건축사무소인 유토피아 아르키텍테르Utopia Arkiteker는 건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건축 계획, 좋은 재료, 지속가능성,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www.utopia.se



스톡홀름의 유토피아 아르키텍테르가 디자인한 스카일리Skýli는 아이슬란드어로 ‘쉼터’를 의미한다. 아이슬란드의 험난한 트레킹 코스에서도 운반과 건설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스카일리는 일반적인 산속 보호소의 안전 기능을 넘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풍경까지 선사한다. 4개의 뾰족한 피라미드 모양의 지붕은 안정적이며, 바이오 기술로 만든 ‘Green Coat’라는 소재를 사용해 영하의 온도와 강한 자외선, 부식을 견딜 수 있다. 커다랗고 투명한 창문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가혹한 기상 환경에서도 외부가 잘 보이도록 설계했으며, 입구는 살짝 기울여 놓아 실수로 문을

닫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닫혀 보온을 유지한다.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 옷과 장비를 말릴 수 있는 방과 퇴비 화장실이 있고, 공간 활용을 위한 접이식 테이블, 침대를 비치한 조리실과 수면실이 있다. 빗물을 여과해 씻고 마시고, 태양전지판으로 전기를 생산해 전화를 충전할 수 있다. 응급 의료 장비와 비상식량을 갖추었고, IoT 기술로 장비와 시설을 모니터링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는 구급 요원과 바로 연결해 준다. 아직 설계 단계인 이 쉼터가 현실화된다면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연 가운데서 문명이 이룬 유토피아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LZF

자연의 빛을 닮은 조명, LZF

물결과 파동이 떠오르는 이 LED 조명은 LZF 스튜디오의 'New Wave' 모델이다. 얇은 베니어 합판을 유연하게 구부려 형태를 만드는 LZF의 조명은 목재를 거쳐 나오는 온온한 빛과 창의적인 디자인, 스토리를 담은 광고로 주목받고 있다.
www.lzf-lamps.com



스페인의 조명 스튜디오 LZF는 마리비 칼보Marivi Calvo와 산드로 토티Sandro Tothill가 자신들의 집 조명을 디자인하다 생각해 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얇은 베니어합판으로 조명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그 전에도 목재를 사용한 조명은 있었지만 얇은 합판으로 만든 것은 없었다. 이들은 연구소를 세워 친환경 목재인 Timberlite™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나무로 조명을 만들 수 있게 되자 기존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창의적인 디자인이 가능해졌다. LZF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물고기 조명 '코이Koi'도 그중 하나다. 3m 길이에 영리하고 유쾌

한 잉어를 형상화한 코이는 코이 패브릭이라 부르는 생선 비늘 모양의 합판을 겹쳐 만든다. 발렌시아 지역의 전통 목공 기술자들이 수작업으로 만드는 코이는 생기 있는 형태와 반투명한 몸체를 통과한 빛이 미묘한 아름다움을 만든다. 또 다른 조명 스피로Spiro는 1960년대에 유행한 옵티컬 아트의 영향을 받았다. 기하학적 모양이 착시를 일으키는 옵티컬 아트처럼 불규칙한 나선을 겹친 게 특징이다. 활짝 핀 만들레 꽃잎을 연상시키는 단델리온Dandelion 조명은 갈매기 모양의 독립된 램프를 연결해 만개한 꽃 형상을 이루는데, 모양처럼 빛이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

New Year

파동 + 파동 = 조화롭고 아름다운 물결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1+1=2$ 라고 배웠다. 하지만 파동은 이러한 상식을 넘어서는 재미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만약 두 개의 파동이 만날 때 각각의 박자가 잘 맞으면 $1+1$ 의 에너지는 2보다 더 커지고, 엇박자로 만난다면 두 떨림은 상쇄되어 사라지고 만다. 사회에서 각 개인의 노력을 더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서로가 고유한 파동의 박자를 잘 맞추어 각자의 노력을 더해 간다면 10명이 모여 100명분의 일을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글 최선호

상호작용, 만물을 구성하는 무수한 관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사회라는 것은 개개인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각 개인 사이에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우리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자연과학에도 관계를 칭하는 말이 존재한다. 바로 ‘상호작용’이다. 예를 들어,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도는 것을 만유인력이라는 상호작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본다면 우주는 중력이라는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졌고, 역시 상호작용에 의해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는 셈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또한 마찬가지다. 원자로 구성되어 전 기력, 자기력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물질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 인간 역시 물질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생명체 중 하나다. 물리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상호작용 즉 관계의 산물이다.

파동과 파동으로 이뤄진 인간의 상호작용, 대화
그렇다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상호작용이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기에 따라 다

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언어, 대화가 아닐까? 인간이 말을 하는 행위는 파동과 파동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이다. 성대의 떨림으로 공기를 떨게 하고, 그 떨림이 공기 중으로 퍼져 나가며 다른 사람 귓속의 공기를 떨게 한다. 이 공기의 떨림은 다시 고막을 떨게 하고 그 결과 우리의 떨림은 다시 고막을 떨게 하고 그 결과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이때 공기 중으로 퍼져 나가는 공기의 떨림을 음파라고 부른다. 사실 음파는 그렇게 멀리까지 전해지지 않는다. 확성기를 사용하더라도 도달 가능한 한계 지점이 분명하다. 하지만 소통을 향한 인간의 의지는 그 한계를 극복해 냈다. 음파를 전파로 바꾸었고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떨림이 멀리 퍼져 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한다. 어떤 면에서는 파동이 현대인을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휴대전화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TV 또는 인터넷이 끊어진다면,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현대 사회는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New Wave

상식을 뛰어넘는 시너지, 파동의 세계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1+1=2$ 라고 배웠다. 하지만 파동은 이러한 상식을 넘어서는 재미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만약 누가 $1+1=0$ 또는 $1+1=4$ 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겠지만 파동의 세계에서는 저 모든 것이 진실이 된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되어 노를 저어 가는 카누 경기에서 두 선수가 정박자로 노를 저으면 카누가 움직이겠지만, 엇박자일 경우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할 것이다. 두 선수의 움직임을 더하는 방법에 따라 $1+1=0$ 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파동은 기본적으로 떨림이 퍼져 나가는 것이다. 만약 두 개의 파동이 만날 때 각각의 박자가 잘 맞으면 떨림은 더 커지지만 엇박자로 만난다면 두 떨림은 상쇄되어 사라지고 만다.

보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파동이 전달하는 에너지는 떨림 크기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두 파동의 떨림이 정박자로 더해지면 $1+1=2$ 가 아닌, 2의 제곱인 4가 된다. 물론 엇박자이면 떨림이 없어지면서 $1+1=0$ 이 되고 그

제곱 또한 0이 되어 버린다. 이렇게 정박자로 더해지는 파동은 매우 큰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만약 10개의 파동이 서로 박자가 맞게 더해진다면 10의 제곱 즉 100이 되어 그야말로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사회에서 각 개인의 노력을 더할 때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만 서로 엇박자로 들면 오히려 종이가 찢어져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서로가 박자를 잘 맞추어서 각자의 노력을 잘 더해 간다면 10명이 모여서 100명분의 일을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파동, 모두의 물결
서양의 과학은 전통적으로 환원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체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작은 부분들을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부분을 더해 전체를 이뤄 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성질을 창발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외성은 현대 자연과학에서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원리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인간 사회 역시 개인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각 개인은 언어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망에 계속해서 다양한 상호작용과 노력을 더하며 사회라는 유기체를 움직이고 발전시켜 나간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각 개인의 노력이 정박자로 만났을 때 풍요롭고 다양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냈다. 매 시기 그런 빛나는 순간이 존재했다. 그러므로 2019년 새해에도 사회 각 구성원이 지닌 고유한 파동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조화로운 박자로 더해지며 놀라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 틈에서 발생하는 창발성은 우리의 파동이 향해야 할 새롭고 아름다운 종착지가 되어 줄 것이다.

최선호 교수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로, 스마트폰, 전자레인지, 인덕션, 와이파이 등 우리 일상 속 주제와 물리를 연결해 대중에게 쉽고 흥미롭게 물리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다.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인간을 발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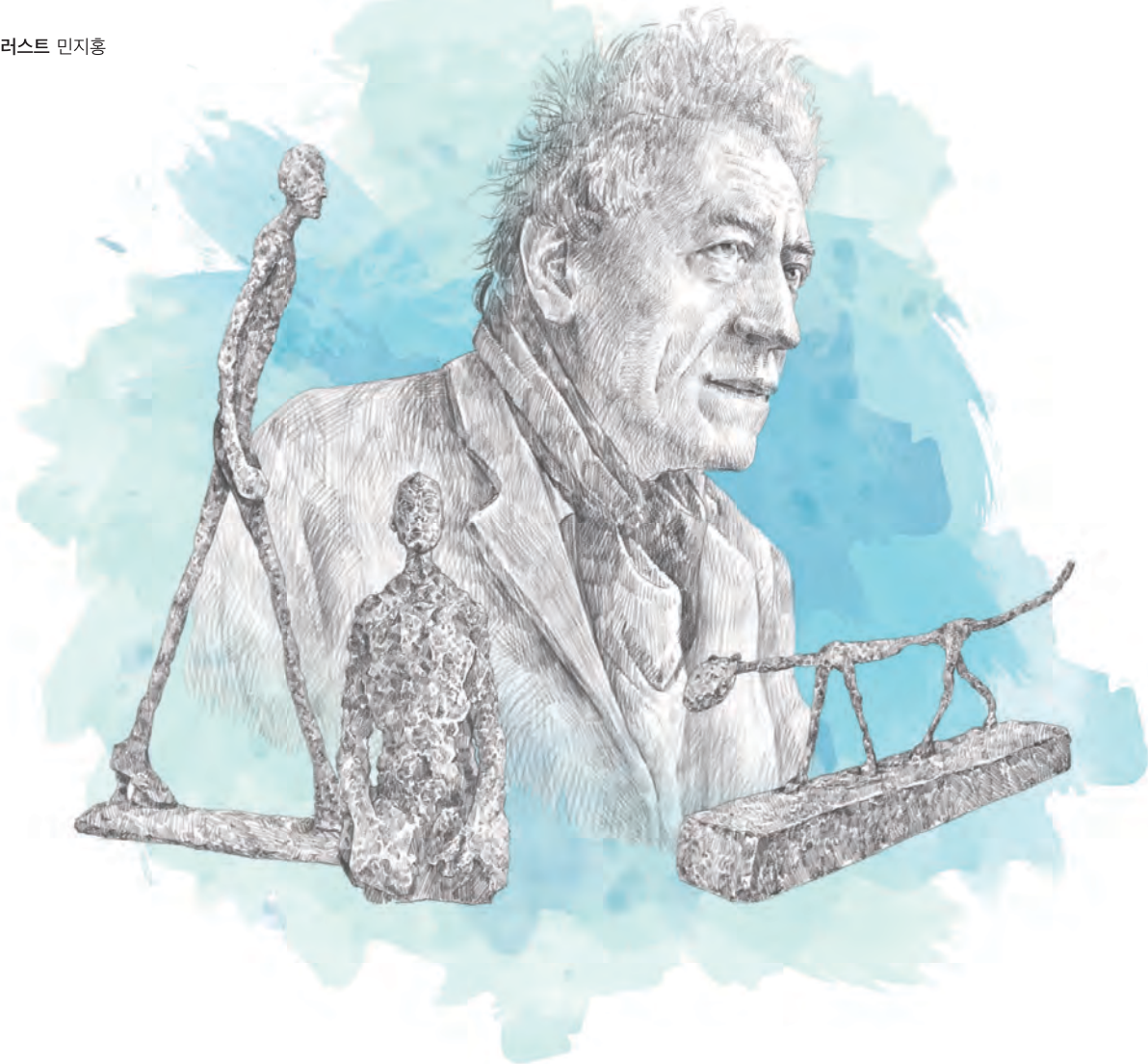


한국 근대 조각을 탄생시킨 개척자,
김복진

1925년 현해탄을 건너는 배 안에서 신음하던 젊은이는 출렁이는 물결과 비비대던 뱃전이 부산항에 채 닿기도 전에 “아이고 나 죽겠소” 하고 소리쳤다. 그것은 고국 땅의 향기를 맡자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저절로 소리친 것이었다. 온몸이 통통 부어오른 다리를 붙잡고 비명을 지른 청년의 병명은 각기병이었다. 그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조각가이자, 사회운동가이며, 문필가가 된 김복진이었다. 낮이나 밤이나 어두컴컴한 도쿄미술대학 조각과 실기실에서 작품에 집중하며 과로와 영양실조에 시달렸던 그가 고국을 찾은 것이다. 문학책을 옆에 끼고 3.1운동에도 참여했지만 해방되지 못한 땅으로 그가 그나마 열정을 가지고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각 덕이었다.

서양사에서는 20세기 초반을 일러 ‘벨 에포크Belle Époque’라 한다. 산업혁명으로 상품이 넘쳐 나고 세계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던 시기, 향락과 즐거움을 누리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담은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의 말이다. 그러나 역으로 동양에서는 식민주의의 영원함을 꿈꾸는 열강의 압제에 시달리던 시대였다. 그 20세기의 여명인 1901년에 대한제국에서 태어난 김복진金復鎭(1901~1940)은 근대 식민주의의 혹독한 압제를 경험했으며, 중립국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한 스위스에서 태어난 알베르토 자코메티Alberto Giacometti(1901~1966)는 화려한 현대미술의 세레 속에서도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인간의 고독을 경험했다. 이들은 확연히 다른 외연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회적 경험을 삶의 보편성에 투영함으로써 예술의 영원한 화두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에 다가갔다.

글 조은정 일러스트 민지홍



시대의 자화상을 빚은 예술가,
알베르토 자코메티

2015년 5월 11일 크리스티 경매사의 ‘근대, 전후, 현대미술을 망라할’이라고 이름 붙인 경매에서는 이름답게 세계적인 기록이 쏟아졌다. 예상대로 피카소의 〈알제리의 여인들〉이 경매 최고가를 경신해 화제가 되었지만, 그보다 놀라운 것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조각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남자〉가 1,549억 원에 낙찰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스위스 출신의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인간 실존의 고뇌를 앙상한 뼈대만 남은 듯한 가느다랗고 긴 형태로 표현한 조각가다. 자코메티를 움직인 것은 ‘삶과 죽음’이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었던 그가 빚은 형상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대량 학살을 경험하면서 느낀 존재에 대한 고찰과 고뇌가 담겨 있다.

“흙내가 물씬 나게 하여야
할 것이겠고 추사의 글씨같이
한 각에 한 자에 하나 이상,
열 이상 무한의 ‘옥타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파고를 넘은 인간상, 김복진

도쿄미술대학 조각과를 졸업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김복진은 배재학교, 야학인 고학당, YMCA 정측강습원과 자신의 사저에 마련한 정관미술 연구소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한국 근대조각의 시작점에 그가 있는 이유다.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한 <나체습작>이 파손되는 과정에서 “시기한 일본인이 훼손했다”는 소문이 지면을 장식할 만큼 한국 근대조각의 최고봉에 그가 있었다. 그는 1925년 조선만화가구락부를 조직하고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KAPF) 창립에도 참여한 사회운동가였다. 식민지 조국에서 제국주의 저항운동에 참여해 서대문형무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식으로 들어온 밥을 짓이겨 조각을 했고, 이를 본 간수가 목공 일을 하게 해 목조 불상을 만들었다는 전설 같은 일화가 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자신도 이질에 걸려 죽은 40세에 이르기까지 그가 작품 활동을 한 기간은 5년의 수형 기간을 제외하면 10여 년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전쟁으로 대부분의 작품이 포화에 불타 조각가로서의 면모를 확인 가능한 작품은 불교 조각에 한정되어 있다. 김제 금산사의 <미륵대불>은 그의 근대조각가로서의 역량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다. 전통 불상의 손이 가늘고 긴 형태인데 비해 그는 인체의 손을 재현했고, 뒷모습까지 배려함으로써 ‘한조’로서의 불상을 실현했다. 공주 소림원 불상은 정형화되고 곧추선 전통 불

상과 달리 몸 전체의 흐름을 날렵하게 담았다. 작은 얼굴과 머리에서부터 엉덩이, 발로 이어지는 날렵한 선이 근대조각가의 면모를 한눈에 알게 한다.

흑백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작품 <백화>는 고려 시대 의로운 기생 이야기를 그린 연극 <백화>의 주인공을 조각한 것으로, 조용하면서도 미세한 형태 속에서 비장비를 보게 한다. 순종 황제의 유모이자 교육인이었던 최송설당을 조각한 <최송설당>은 넉넉한 인품이 배어나는 미소와 조용하면서도 우아한 고전적 미를 구현했다. 한편 그의 유작으로 소개된 <소년>은 그리스 조각의 전통 아래 역강한 리얼리즘 조각의 실체를 드러낸다. 이 작품에서는 고뇌를 떨치는 식민지 지식인의 의기로움을 발견하게 된다.

근대조각가 김복진은 시대의 선각자로서 보기 드문 심미안을 갖춘 지식인이었다. 그의 사실주의 조각은 이후 후배들조차 그 본질적 표현에 여전히 필적하기 어려운 솜씨를 발휘했다. 동상을 제작했지만 어느 것 하나 돈에 기울어 작품성을 포기한 적은 없었다. 전통의 미덕과 근대인의 자긍심, 예술가의 예민함을 고루 지녔던 김복진이 이룬 것은 “인간은 역사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의 좌우명과 함께 한국 근현대문화사의 지표가 되고 있다.

공허를 넘은 고독의 존재, 자코메티

스위스와 이탈리아가 접한 국경 근처의 보르고노보Borgonovo 지방에서 태어난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후기 인상파 화가인 아버지 조반니 자코메티Giovanni Giacometti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며 일찍이 예술가의 길에 들어섰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비껴 있던 중립국에서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낸 자코메티는 1922년 파리로 갔다. 로댕의 제자인 브루델 밑으로 들어간 그는 분명 풍부한 양감을 경험했을 것이다. 오늘날 자코메티 작품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들과 그 스승들의 작품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은 그가 일찍이 파리 화단의 입체주의와 초현실주의를 흡수했기 때문이다.

자코메티를 이해하는 데는 거장들의 신화, 이를테면 가난하고 지독한 사랑을 하고 예술가들과 친교하고 가족과 애증의 관계 있는 등의 공식이 들어맞으면서도 묘하게 어긋나는 점이 있다. 입체파의 창안자 피카소와의 교류는 친교이자 질투로 점철된 것이었으며, 뛰어난 예술가가 될 수 있었음에도 평생 조력자 역할을 한 동생 디에고의 헌신은 고갱과 고흐, 고흐와 그의 동생 테오와의 관계를 생각나게 한다. 자코메티는 고흐처럼 독서광이었지만 이성적인 비판가였으며, 작품 재료를 사기 위해 끼니를 걸러야 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다. 자코메티는 1948년 1월 뉴욕 피에르 마티스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평생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26.4m²(8평) 정도에 불과

한 어두운 작업실에서 죽는 날까지 머물렀다.

눈앞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전쟁은 삶을 바꾸는 커다란 용광로와 같았다. 제2차 세계대전은 자코메티 작품 세계의 분기점이 되었다. 순수예술을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한 나치의 압제로 작가들이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파리에서 동생 디에고는 자코메티의 아틀리에를 지키겠다고 고집했다. 동생에게 아틀리에를 맡기고 스위스로 갔다가 돌아온 자코메티의 작품은 초현실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것은 초현실과 같은 현실에서 실존을 인지하고 형해한 인간의 형태에서 내면이 드러나게 한 형상의 등장이었다.

“가장 아쉬운 건 사람이 딱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삶에 중요한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겠지요. 전 매일매일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제 조각들도 저처럼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겠죠.”

1901년 같은 해 태어나 식민지 한국에서 생을 마친 김복진과 유럽 미술의 거장으로 생을 마감한 자코메티. 조우하지 못한 두 사람의 인생도 모두 사회 속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 깨어 있기 위해 멈추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는 몸짓이었음이 틀림없다.

조은정 미술평론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김복진 작품, 불교미술을 비롯해 한국조각사, 한국미술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근대미술학회장을 맡고 있다.



“내 눈엔 세상이 날마다 더 특별하고 더
흥미로워요. 그래서 매일 다르게 보게
되고, 또한 더 풍요롭게 보게 되죠.”

고전을 새롭게 발견하는 손끝,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발표된 지 불과 몇 주만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음악이 태반이다. 모든 것이 알고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에 몇백 년 전의 악보를 반복해서 연주하는 클래식 세계는 심오하고, 그래서 어렵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연주의 '차이'를 알게 되면 그 미세하고도 거대한 변화에서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며 오랫동안 온몸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클래식의 세계다.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은 스무 살의 나이에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에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나만의 연주를 할 수 있을지'인 것 같다. 클래식을 통해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과 음악을 통해 자극과 활력을 얻는 아주 준법경영실의 신다연 매니저가 만났다.

글 소효령 사진 장호

요즘은 독일에서 생활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뵈게 되어 반가워요. 투어 때문에 오신 거죠?

네, 계속 투어 중이에요. 이번에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이 있어서 왔어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공연도 하고 오랜만에 지인들도 만나게 되어 기뻐요.

2015년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하셨어요.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만 공부해 순수 국내파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는데, 독일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4학년 졸업반 때부터 콩쿠르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입상은 부수적인 것이었어요. 그보다는 동기부여가 우선이었죠. 콩쿠르를 준비하는 데는 굉장한 연습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요. 입상은 당장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목표보다 빨리 우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휴학하고, 그때부터 전 세계로 연주를 다니는 연주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공연이 많아졌는데, 제가 워낙 외국에서 공연을 자주 하다 보니 사람들은 제가 당연히 외국에 사는 줄 알더라고요. 실제로 연주로 왔다 갔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굳이 한국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주 무대인 유럽으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죠.

콩쿠르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게 의외예요.

물론 준비할 때는 당장의 큰 목표예요. 그래서 모든 걸 걸고 열심히 하죠. 콩쿠르가 이름을 알리는 발판이 되는 것도 맞고, 우승을 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따라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해내면 끝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콩쿠르는 시작이에요. 콩쿠르 입상은 일종의 보증 수표를 받는 것과 같은 듯 해요. 세상에는 수많은 귀와 취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콩쿠르는 그 취향을 넘어 순위를 매겨요. 콩쿠르 입상은 취향을 떠나 이 연주자가 최소한의 보편 타당한 연주를 들려줬다, 그것을 보증한다는 정도의 뜻일 뿐인 것 같아요.

2017년에 세계적 클래식 레이블인 워너클래식에서 첫 음반이 나왔어요. 음악가에게 음반은 명함과도 같다고 표현하신 걸 봤는데, 사회 초년생 때 첫 명함을 받으면 뿌듯하기도 하고 책임감이 느껴지도 하거든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에게 첫 앨범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콩쿠르는 본인이 원하면 나갈 수 있지만, 음반은 아니잖아요. 제가 원한다고 기회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음반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레이블의 히스토리에 남는 일이고, 세일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빨리 제안이 와서 녹음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녹음을 하면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스물두 살이었는데, '스물두 살에 한 연주가 몇 년 뒤에는 어떻



“콩쿠르 입상은 취향을 떠나 이 연주자가 최소한의 보편 타당한 연주를 들려줬다, 그것을 보증한다는 정도의 뜻일 뿐인 것 같아요.”

게 들릴까', '지금 녹음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이 많았더라고요. 사회 초년생의 명함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기분이예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야 할지, 이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첫 앨범에서는 모차르트와 베토벤 곡 같은 고전 음악을 연주했는데, 원래는 좀 더 모던한 음악을 연주하고 싶었다고 들었어요. 비교적 현대의 음악을 연주하고 싶었던 이유가 궁금해요.



음반 제작으로 미팅을 했는데, 저한테 어떤 음악이 하고 싶은지 물어보 시더라고요. 저는 색채가 강한 러시아 음악이 하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 하고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첫 작업이다 보니 고전 음악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잘된 것 같아요. 나중에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그만큼 나아간 연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습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놀러갈 때도 바이올린이 없으면 불안해 하신다고요. 요즘도 비슷한가요?

학생 때는 연습 시간이 많았는데, 연주자가 되고 나서는 일 때문에 사람도 만나야 하고, 미팅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더라고요. 전보다 연습을 못 하게 되어서 불안감이 컸어요. 지금은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해요. 바이올린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도 일종의 직업병인 것 같아요. 바이올린이 없으면 팔이 하나 없는 기분이거든요. 가끔 수리 때문에 바이올린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역시 지금은 익숙해지려고 해요. 음악을 듣는다든지, 악보를 본다든지 하면서요. 그 상태에 있는 나에게 집중하려고 해요.

불안을 떨쳐 내려는 노력이 있었군요. 연습 시간이 많아 생활이 단조롭다고 하신 것도 봤는데, 연주 일정이 없거나 휴식을 취할 때 무엇을 하시나요?

여행을 자주 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제게 많은 도시를 가 봤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공간은 공연장-숙소-공항이 전부예요. 내가 정말 그 도시를 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연주와 상관없이 여행을 가고 도시 자체를 즐기려고 해요. 또 유럽은 국경이랄 게 없잖아요. 어디 금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게 재밌더라고요. 요즘은 되도록 많은 곳을 가 보려고 노력해요.

여행을 통해서 영감을 받기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베를린에서 생활하 시잖아요. 몇 년 전부터 베를린은 전 세계 예술가들이 모이는 성지가 된 것 같은데, 그곳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시나요?

2017년부터 독일에 있었는데, 외국 공연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는 했지만 독일어를 배운 적은 없었어요. 영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독일어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아직 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언어를 떠나 음악으로도 소통이 돼요. 어디를 가도 음악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동료들도 많이 살아요. 음악뿐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교류하기도 쉽고 모여서 프로젝트를 해 볼 기회도 많아요. 그런 면에서 베를린은 예술가에게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요즘은 하루하루의 생활,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자극과 영감을 받아요.

지금의 환경이 음악가에는 자극이 될 것 같네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임지영 씨의 연주를 “탭 댄서가 연상되는 민첩하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지판 끝에서 반대까지 내달리며 극적인 감각을 드러냈다”라고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주할 때 본인의 연주가 어떻게 들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나요?

어떻게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관객들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바이올린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무대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소통에 오류가 없어야 해요.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연주를 다니면서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한 공연에서도 어떤 분은 좋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주해 보기도 했는데, 결국 제 연주가 아니라 관객의 입맛에 맞는 연주가 되더라고요. 크든 작든 규모를 떠나 소통이 되는 분위기의 연주회가 있어요. 반면에 집중이 안 되는 연주회도 있고요. 저는 소통이 되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연주자의 무대 장악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 지점을 찾는 것이 연주자의 몫이겠지요.

“요즘은 하루하루의 생활,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자극과 영감을 받아요.”

한국에서 클래식은 대중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음악가들을 통해 클래식이 널리 알려지고,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듣기 시작했다고 느낍니다. 연주자에게 클래식이 대중화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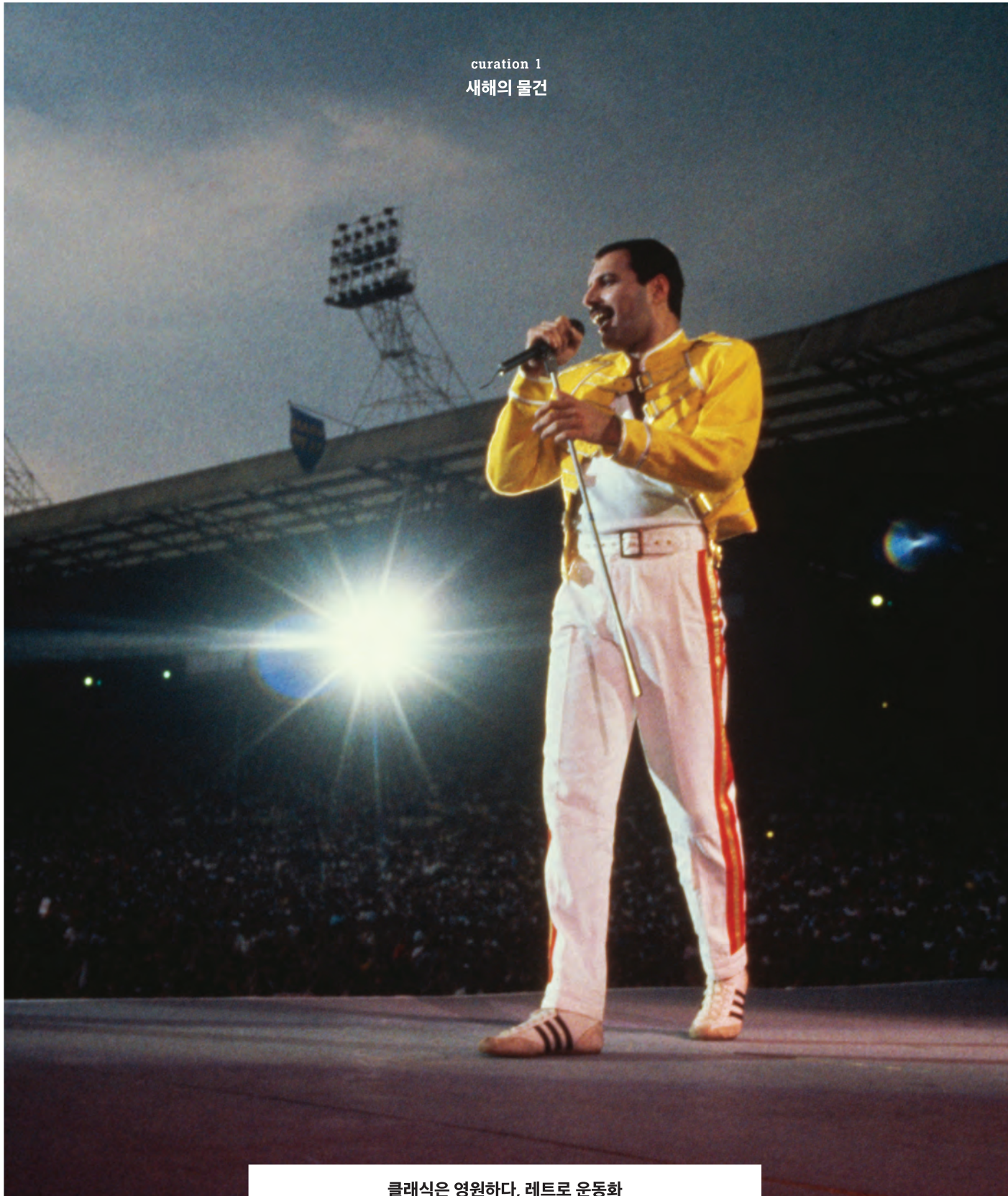
클래식이 대중화되는 것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어요. 클래식은 우리 음악도 아니고, 곡을 쓴 작곡가들은 멀게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일 수 있죠. 저는 음악가는 음악을 친숙하게 만드는 게 의무라고 생각해요. 거창한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음악을 생활의 일부로 느끼면 되는 거죠. 사실 클래식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있기도 해요. 우리가 지나치는 영상 속 음악에서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은 클래식을 들을 수 있잖아요. 저는 클래식이 이미 어느 정도 생활화되었다고 생각해요.



클래식은 같은 악보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연주자에 의해 연주되는 음악이에요. 예술가의 길은 그림에도 다른, 나만의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연주자로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걷고 싶나요?

몇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당시에 작곡가가 어떤 생각으로 곡을 만들었는지를 상상하면서 연주해요.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해야 하는 거죠. 답이 없는 어려운 작업이에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작곡가의 의도를 안고 가면서 그를 바탕으로 나만의 음악을 해야 해요. 하루하루 생각하는 게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요. 저는 젊은 연주자이고 앞으로 연주자로서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curation 1
새해의 물건



클래식은 영원하다, 레트로 운동화

언제든 돌아오는 게 복고 유행이라지만, 지난 몇 년간 패션계는 꾸준히 ‘클래식’ 디자인에 열광했다. 2015년, 아디다스 슈퍼스타의 1969년 오리지널 디자인이 복각되자 “슈퍼스타를 신지 않으면 밀라노 컬렉션 쇼장에 입장이 불가하냐”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프레스들이 즐겨 신었고, 2018년에는 1990년대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컬러와 과장된 디테일,

투박한 실루엣의 일명 ‘어글리 슈즈’가 세계적으로 유행했다. 1970년 중반부터 진화를 거듭해 온 나이키의 코르테즈도 최근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해 화제가 되었다. 몇 년간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레트로 열풍으로 패션계는 예전을 추억하며 당시의 제품을 복원하는 동시에 시대를 타지 않는 디자인에 동시대성을 더하기도 했다.

Now & Moment

“변화는 우리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또는 미래를 기다린다고 찾아와 주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추구하는 변화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일상, 더 천천히

설사 꼭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새해 초는 무언가를 결심하고 시작하기에 좋은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올해는 익숙하지 않은 낯선 도시를 탐방하며 내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어 보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건강과 환경을 위해 수십 번 고민했지만 실천하기 어려웠던 채식을 조금씩 시작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 시야를 넓히겠다고 다짐했다면 촌스럽다고 여겼던 전통 보자기가 어떤 아름다움을 지녔는지, 이제 더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겠죠. 비록 생각처럼 눈에 띄는 큰 성공은 없을지라도, 이렇게 시도하는 작은 노력이 쌓여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새로 발견한
태국의 매력,

치앙라이

글·사진 김주영(한국일보 기자)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국인의 삶과 문화는 한국의 5.2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고루 퍼져 있다. 같은 듯 다른 삶의 방식이 도시마다, 동네마다 다양한 풍경 위에 펼쳐진다. 태국 북부에 위치한 치앙라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제법 익숙한 치앙마이에 인접한 치앙라이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준다. 남국의 북쪽에서 새로운 매력을 뿜어 대는 작은 도시는 신구의 자연스러운 조화, 동서양의 포용적인 융화의 본보기로 손색없다.



예술혼 가득한 백색 사원

남국의 겨울은 계속 뜨겁다. 한없이 질어졌던
엽록소가 아주 약간 얼어질 뿐 황량해지지 않
는다. 추수를 마친 들판도 여전히 푸르다. 우
리의 것과는 사뭇 다르지만 겨울은 겨울이다.

강렬한 태양빛을 가리는 가로수 사이사이
차갑게 얼어붙은 성이 보인다. 푸르름 속 홀로
차가운 ‘겨울의 색’을 띤 이 구조물은 녹색의
산과 벌판으로 지루해진 시각을 단번에 사로
잡는다.

‘화이트 템플White Temple’로 더 잘 알
려진 ‘왓롱쿤Wat Rong Khun’이다. 뜨거운
태양의 지배를 거부하며 차가운 기운을 내뿜
는 이곳의 모습은 얼핏 ‘겨울왕국’을 연상시킨
다.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열기에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하지만 무언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듯 오롯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빨강, 초
록, 파랑 등 채도 높은 열대 컬러 속 무채색 백
색 건축물은 생뚱맞게 보일 법하지만 주위의
풍경과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순결한 마음을 순백으로 표현
한 사원은 치앙라이의 불교 화가이자 건축가
인 찰름차이 코싯피팟(65)의 작품이다. 소
년원을 들락거릴 정도로 문제아였던 그가 죄
를 갚기 위해 무너져 가는 사원을 허물고 자
비 4,000만 바트(약 13억 3,000만 원)을 들여
1997년부터 짓기 시작했다. 이제 20년을 넘
긴 곳이지만 유구한 불교 역사와 함께한 태국
국민들이 꼭 방문해야 할 곳으로 꿈을 정도로
치앙라이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코싯피팟은 불교의 지옥, 현세, 극락을 독
특한 방식으로 묘사했다. 절망에 쌓인 지옥에
서 절규하는 중생은 수백 개의 손과 팔이 요동
치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지옥을 지나는 다리
를 건너면 현세다. 둥근 지구를 묘사한 사원
내부에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슈퍼맨, 손오
공 등 영화 속 영웅이 재앙에 맞서 싸우는 모
습을 그려 놓았다. 진지하고 근엄해져야 할 것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는 엉뚱한 장면은 형식
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남국의 자유와 포용
의 가치가 담겨 있는 듯 보인다.



극락에 이르면 순결한 백색 위에 투명한 은빛
이 쏟아진다. 이름 모를 갖가지 꽃이 피었고
영검한 동물들이 춤을 춘다. 찬란한 아름다움
을 만끽하는 것은 찰나다. 우리네 일상 속 마
음 상태를 고스란히 담아서일까. 천당에 할애
한 공간은 지옥과 현세를 표현한 공간과 비교
하면 넓지 않다. 천당에서 조금 옆으로 나오면
‘진짜’ 현실과 마주한다.

사원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종교 기관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건축가의
나이가 127세가 되는 2070년까지 공사를 계
속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승려가 머무
는 공간과 박물관 등 부속 건물을 더 지어 ‘진
정한 사원’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인공미 넘치는 싱하파크

왓롱쿤이 종교와 예술의 공간이라면 5km정
도 떨어진 싱하파크Singha Park는 상업적

냄새 물씬 풍기는 공간이다. 싱하파크는 태국
양대 맥주 제조 회사 중 하나인 싱하그룹이 조
성했다. 거대 자본이 계획적으로 설계하고 만
든 만큼 인공미가 가득하지만 ‘날것’보다 ‘가공
된 것’에 더 익숙한 도시인들이 즐기기에 오히
려 제격이다.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겨
울이 이곳에선 활동하기 가장 알맞은 계절이
다. 물안개 피어 오르는 호수 옆을 지나 낮은
언덕에 오르면 코스모스 밭이 넓게 펼쳐져 있
다. 정비된 산책로를 따라 내려가면 곧 뜨거워
질 아침 햇살이 차차 발을 가득 채운다. 적당하
게 폭신한 잔디밭을 걷다 보면 이마에 땀이 송
골송골 맺힌다. 이 모든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
는 야외 카페로 자리를 옮긴다. 미세먼지는 상
상도 할 수 없는 청량한 공기에 마음속까지 상
쾌해진다. 연유 듬뿍 넣은 태국식 커피에 이곳
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 달콤해진다.

자전거로 공원을 돌아보는 것도 좋다. 한낮
에 태양이 살을 벨 것처럼 날카로워져도 자전
거로 바람을 가르면 제법 부드럽다. 싱하파크
는 자전거 대회가 수시로 열릴 만큼 자전거 친
화적인 공원이다. 차량이나 보행자에 방해받
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페달을 밟을 수 있
다. 얇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어 지루하
지 않다. 공원 한 바퀴는 약 6km, 느린 속도로
30분가량 걸린다. 이 정도면 적당히 갈증이
오르고 시원한 맥주가 생각난다. 싱하맥주 한
잔으로 목을 축이기 딱 좋은 시간이다.

- | | | |
|-------|---|--|
| 1 3 | 1 |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회벽의 가장자리는 겨울로 장식해 놓았다. |
| 2 4 | 2 | 극락세계로 통하는 ‘윤회의 다리’ 입구. 윤회의 고리를 끊고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는 불교의 세계관을 담았다. |
| | 3 | 치앙라이는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한 멋이 있는 태국 북부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
| | 4 | 고요한 아침에 물안개가 피어오른 싱하파크의 코스모스 밭 |





아시아 대표 커피 산지 그리고 차분한 밤

치앙라이 시내에서 70여km 떨어진 도이창 Doi-Chiang산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커피 산지다. 해발 1,700m에 이르는 고원 지대의 건조하고 서늘한 기후는 명품 커피 재배에 안성맞춤.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국의 국경 지대에 위치해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라 부르는 이 지역은 중앙 통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과거 양귀비 재배가 성행했고 아편 생산 지역으로 악명 높았다. 1983년 왕실이 나서 진행한 로열 프로젝트Royal Project는 양귀비 대신 커피 재배를 독려하면서 커피를 이 지역 특산품으로 만들었다. 깊은 산속 커피 산지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지만, 시내 아무 카페에 들러도 신선한 커피 향을 음미할 수 있으니 이것만도 호사다.

치앙라이의 밤은 차분하다. 화려하지 않지만 밝고 따뜻하다. 야시장의 상인들은 온화한 미소를 지을 뿐 소리치며 손님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광장은 시끌벅적하지 않고 도란도

란하다. 고래고래 소리치며 술과 음식을 재촉하는 손님도,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점원도 없다. 저렴한 물가에 적당한 양의 음식을 받으면 손해 본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어느 유명 관광지처럼 돈에 찌든 장사치의 술수에 놀아난다는 기분도 들지 않는다. 광장의 사람들은 무대 위 가수가 태국식으로 부르는 팝송 선율처럼 부드럽고 느긋하다. 천천히 얘기하고 천천히 움직인다.

길 위도 마찬가지다. 그저 흘러갈 뿐 급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다. 경적 울리며 서로 먼저 가겠다는 이 하나 없다. 수십 분째 손님을 기다리는 뚝뚝 기사들의 얼굴도 짜증 하나 없이 온화하기만 하다. 절로 마음이 편해지는 밤이다.

1 | 2 1 치앙라이 지역 고산족인 아카족은 도이창산에서 최고 수준의 커피를 재배한다.

2 치앙라이 시내의 나이트 바자에서는 전통 수공예품과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 치앙라이 제대로 즐기기

☀ 날씨

태국 북부 내륙에 위치한 치앙라이는 12월부터 2월까지가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동남아 특유의 습하고 찌는 듯한 날씨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낮 기온이 30°C까지 오르지만 습도가 30% 내외로 건조하다.

💰 물가

중간 수준 카페의 커피 한 잔 가격이 60บาท, 2,000원 정도이니 물가는 서울보다 저렴한 편이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만 300บาท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잔돈을 환전해 가는 것이 좋다.

✈ 항공

아직 한국에서 치앙라이로 가는 직항편은 없다. 방콕을 거쳐 태국 국내선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 경우 환승 시간을 포함하면 10~12시간 걸린다. 한국에서 직항편이 운항하는 가장 가까운 공항은 치앙마이로, 인천공항에서 치앙마이 공항까지는 약 7시간,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까지는 버스로 3시간 정도 소요된다.

🚗 교통

시내 교통수단은 버스, 택시, 삼륜차인 뚝뚝, 트럭을 개조한 미니버스인 썬태우 등 다양하다. 이용료가 가장 비싼 택시의 경우 시내에서 왓퐁군까지 약 20km를 이동하는 데 300บาท(약 1만 원) 정도 든다.



1.

그린 치킨 커리
코코넛 밀크와 레몬그라스, 고수, 쿠민 등이 들어간 카레 페이스트에 닭고기를 넣고 끓인다. 태국 특유의 다양한 향신료 맛을 느낄 수 있다.

Green Curry of Chicken



Pad Thai

3.

팟 타이
태국의 쌀국수 요리다. 국수와 함께 달걀, 피시 소스, 새우 등을 넣어 볶고 라임, 땅콩을 곁들여 먹는다. 태국 왕실에서 보급한 국민 요리다.

4.

핫 앤 사위 해산물 수프
흔히 '뚝 암'이라 부르는 태국식 수프다. 새우, 조개를 비롯한 해산물과 라임즙, 고추, 후추 외 여러 가지 향신료, 허브가 어우러져 특유의 신맛과 매운맛을 낸다.

Hot and Sour Soup of Seafood



Thailand Taste



2.

그린 파파야 샐러드
덜 익은 파파야를 썰어 넣은 샐러드로 '숨 땀'이라고도 한다. 본래 라오스 요리였으나 태국의 대표 요리가 되었다. 새콤하면서 매운맛이 나는 게 특징이다.

Green Papaya Salad



Long Chim

서울에서 경험하는 태국의 맛, 롱침

태국 음식의 진정한 맛은 스트리트 푸드와 마켓에서 나온다는 믿음 아래 롱침을 오픈한 미쉐린 스타 셰프 데이비드 톰슨David Thompson이 태국 방콕의 스트리트 푸드를 모던하게 해석한 메뉴를 선보인다. 현지의 맛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방콕에서 직송한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이색적인 태국 음식으로 트렌디한 문화의 중심 홍대에서 태국에서 즐겼던 현지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30

🕒 점심 : 정오 ~ 오후 3시, 저녁 : 오후 6시 ~ 오후 10시

☎ 02-330-7800

🌐 www.rysehotel.com/long-chim

줄여도
맛있다,
글루텐프리
비건 베이킹

글루텐프리 비건 베이킹이 뜨고 있다. 글루텐프리란 밀가루와 같은 곡물에 포함된 단백질인 글루텐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선천적으로 글루텐을 소화하지 못하는 글루텐 불내증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환경, 건강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글루텐프리 비건 베이킹을 반긴다. 대체 재료를 사용해 맛이 부족할 거라는 편견을 깨고, 맛은 물론 지구와 건강까지 지키는 베이킹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

글 송성례 일러스트 민지홍

밀가루를 드실 수 있나요? 부럽습니다

“밀가루를 드셔도 괜찮다면 드셔도 됩니다. 부럽습니다.”

제가 쓴 책에서 한 말입니다. 정말 부러워 진심을 담아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글루텐 불내증을 앓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밥이나 빵, 인스턴트 음식 등을 먹으면 가스가 차고 수족 냉증, 다한증, 두통과 소화 장애 또는 배탈 등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지요. 덕분에 음식에 애정이 없었습니다. 제게 선천적으로 글루텐 불내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사람들도 음식을 먹으면 나처럼 아픈 걸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병원에서 검사를 했고, 글루텐 불내증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었던 많은 음식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글루텐은 생각보다 많은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밀, 보리, 호밀은 물론 한식에서 빠질 수 없는 된장, 고추장, 간장과 춘장, 카레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류 뒤에 표기된 ‘소맥’이 밀가루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름에 자주 먹는 메밀국수와 냉면, 국수에도 밀가루가 대량으로 들어가고, 소시지나 어묵 그리고 쌀떡에도 가끔 소량의 밀가루를 씁니다. 보리도 글루텐을 함유하고 있으니 보리밥, 보리차에도 있고 풀을 썰어서 담그는 김치에도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위장, 소장, 대장이 약하기 때문에 동물성 재료를 소화하기 힘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채식을 지향하게 됩니다.

글루텐프리 비건 베이킹을 찾는 사람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글루텐 섭취가 어려운 사람만이 글루텐프리나 비건 음식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엔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와 건강을 위해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다이어트가 필요한 연예인들, 국내에서 비건 음식점을 찾는 외국인들, 셀리악병 때문에 한 번도 생일 케이크를 먹지 못한 아이, 아토피를 앓아 친구들과 디저트를 먹지 못하는 대학생,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임신부를 위해 한걸음에 달려온 남편 등 다양한 사람이 베이커리를 찾습니다.

비건 베이커리를 운영하다 보면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싸고 맛있는 음식도 좋지만 그것만 찾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음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그 재료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고, 집 앞이 아니라 멀리 가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더라도 기꺼이 건강한 요리가 있는 곳을 찾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하고 더불어 미각의 즐거움과 변화의 즐거움까지 찾는다고 할까요? 먹어도 해롭지 않은 빵, 죄책감이 들지 않는 디저트를 찾는 이들을 보며 많은 사람에게 먹는 행위가 단지 맛과 생존의 문제가 아닌 철학과 가치관의 문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글루텐프리 비건 베이킹을 위한 대체 재료

밀가루 대체 재료

쌀가루, 현미 가루, 아몬드 가루, 코코넛 가루, 베이킹파우더& 베이킹 소다, 전탄검



달걀 대체 재료

부풀기 용도: 아마씨 또는 치아씨드 가루 + 물
응집 용도: 감자 전분 또는 옥수수 전분 + 물



유제품 대체 재료

아몬드 밀크
(생 아몬드 1Cup + 물 2Cup + 바닐라 엑스트랙 1/2t + 소금 약간)
두유, 물&탄산수



버터 대체 재료

코코넛 오일, 식용류



설탕 대체 재료

비정제 수수당, 코코넛 슈거, 천연감미료(에리스리톨)





+ 서울에서 만나는 비건 빵집



씨니브레드
글루텐프리 식품 뿐만 아니라 비건, 식품 제한의 불편을 겪는 이들을 위한 베이커리 겸 키친을 운영한다.



더로바이트원스
비건 도넛으로 유명한 합정동의 비건 베이커리. 오븐을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빵과 케이크를 선보인다.



알프리베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이들을 위해 방부제, 기타 합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쿠키, 머핀, 케이크를 판매한다.



온스
한남동에 위치한 디저트 베이커리로 유제품 및 화학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디저트를 내놓는다.



빵어니스트
밀가루, 설탕, 달걀 등이 들어가지 않은 디저트를 만든다. 썩, 녹차, 두부를 활용한 디저트가 인기다.

새로운 맛과 레시피를 발견하는 비건 베이킹

글루텐프리 비건 베이킹의 재료는 무궁무진합니다. 먼저 글루텐을 배제하기 위해 밀가루, 통밀, 호밀을 빼고 비건 식이를 위해 달걀, 버터, 우유 등 모든 동물성 재료도 제외합니다. 또 건강을 위해 흰 설탕과 같은 정제 재료도 쓰지 않죠. 모든 재료를 빼고 빵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대체 재료가 정말 많습니다.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 성분은 쌀가루, 현미 가루, 수수 가루, 차전자피 가루, 아몬드 가루, 감자 전분, 메밀 가루를 사용하고, 달걀과 같은 단백질 성분은 아마씨, 치아시드, 두부, 바나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버터 대신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를 사용하고 두유, 아몬드 밀크로 우유를 대신합니다. 다만 단순히 1:1 비율로 바꾸면 슬픈 결과를 보게 됩니다. 기존 재료에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비율과 함량을 최대한 맞춰야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를 찾아보고 연구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실험을 거치면서 레시피를 완성해야 합니다.

글루텐이 주는 질감과 고유의 향은 생각보다 무척 강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버터의 풍미나 밀가루의 쫄득한 식감을 100%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구요. 글루텐 프리 비건 빵은 그만의 풍미와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방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맛 자체가 새롭습니다.

지구와 동물 그리고 나를 지키는 채식

베이킹을 하다 보면 재료의 무궁무진함과 함께 음식의 가치, 음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채식을 하면서 다른 채식주의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우리가 포장된 고기를 살 때 그 고기가 내 손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량 소비를 위한 고기의 생산, 특히 공장형 축산은 공기와 수질,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알려져 있지요. 전 세계 곡물의 3분의 1을 가축이 먹는데 그 양이 인류 1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도 하고요. 공장식 사육장에서는 소를 비롯한 거의 모든 가축이 움직일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사육당하고, 대부분의 가축은 최소한의 풀밭이나 넓은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도축장으로 끌려갑니다. 비좁은 사육장의 가축은 질병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가 불가피하겠죠.

채식이 유일한 답이며, 육식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할 때 이 소비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존재를 생각할 수도, 생존이 아닌 것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할 수도 있는 '인간'이니까요.



송성례(씨니브레드 대표)
선천적 글루텐 불내증을 앓아 어린 시절부터 식이 제한을 하며 살아왔다. 식품 제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건강한 베이커리 겸 키친을 운영 중이다.



HOME MADE Green Tea Chocolate Chip Muffin GLUTEN-FREE BAKING



가루	액체	설탕 1/3Cup+2T	식초 1+1/2t
씨니 글루텐프리 멀티 믹스 2/3Cup+2T	· 현미 가루 1Cup · 쌀가루 1Cup · 감자 전분 1/4Cup · 잔탄검 1/2t	코코넛 오일 or 카놀라유 1/4Cup 바닐라 엑스트랙 1t 따뜻한 물 1/4Cup 녹차 가루 2T 코코넛 밀크 1/2Cup	아마씨 달걀 1개 · 아마씨 가루 1T · 물 3T 초콜릿 칩 1/4Cup
소금 1/2t			
베이킹파우더 1+1/2t			

머핀 6개 레시피
6개짜리 머핀 팬 : 1구 9.5cm(지름)x4cm(높이)
머핀 팬에 머핀용 유산지를 준비해 주세요. 코코넛 밀크는 실온에 미리 꺼내 두세요.



1
오븐은 180°C로 예열합니다.



2
가루 재료를 모두 체 친 후 골고루 섞어서 미리 준비해 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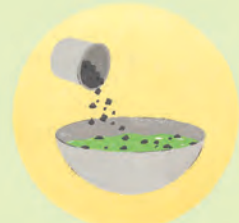
3
따뜻한 물에 녹차 가루를 넣고 골고루 풀어 줍니다.



4
아마씨 달걀에 녹차액을 뺀 나머지 액체 재료를 차례로 넣고 섞어 주세요.



5
마지막으로 녹차액을 넣고 반죽을 만듭니다.



6
잘 섞은 반죽에 초코칩을 넣고 가볍게 섞어 줍니다.



7
준비된 머핀 팬에 3/4 정도 반죽을 담습니다.



8
예열한 오븐에 25~30분 굽습니다. 이부시개로 가운데를 찌러 보고 반죽이 묻어 나오지 않으면 오븐에서 꺼낸 후 충분히 식힙니다.

보자기로 감싸 둔 무궁무진한 이야기

호호당 대표 양정은의



‘맑은 물 길어 밥 짓는 곳’이라는 뜻의 정미소는 향토 음식을 만드는 골동반 전문점이었다. 대학원에서 한국 전통 식생활을 연구하던 양정은 대표는 고조리서에 나오는 음식을 재현하고, 맛보고, 연구하면서 전통적이라고 하지만 대중적이지 않은 이 음식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학교를 휴학하고 연 것이 정미소였다.

“주문을 받아 음식을 만들 경우 포장을 하려면 보자기가 필요했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한국에서 제작된 보자기는 비싸고 중국에서 생산된 보자기는 색과 품질이 좋지 않았어요. 마음에 드는 보자기를 직접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것이 호호당이에요.”

‘늘 좋은 일만 있으라’는 의미를 담은 호호당은 정미소라는 이름을 지은 양정은 대표의 어머니가 작명해 주셨다. 신혼집에 호호당이라고 새긴 문패를 걸어 주시기도 한 어머니는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극 의상을 만드는 일을 하셨다. 어렸을 때부터 대문 문턱을 넘어서면 마당에서 한복, 갑옷을 만들고 짚신 꼬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일상이었다는 양정은 대표가 보자기 작업을 평생의 일로 삼게 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직접 만든 보자기로 직원과 손님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셨는데, 저도 옆에서 그 일을 도왔어요. 누군가는 싫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때의 경험이 호호당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흔히 보자기는 전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호호당의 보자기는 전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다. 호호당의 생활용품은 한국 전통의 단아하고 소박한 멋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실용성을 갖추고 있다. 호호당의 보자기는 합섬으로 제작한다. 전통대로라면 한복 원단인 실크를 사용해야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물에 닿으면 얼룩이 생긴다. 합섬은 관리하기 쉽고 가격을 합리적인 선으로 맞출 수 있다. 물론 합섬 중에서도 질 좋은 원단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원단만을 고집하고 때에 따라 직접 짠 원단을 쓰기도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전통이 생활화된다는 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일상에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것. 숨 쉬듯 평범하게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러려면 품질과 디자인이 좋고, 가격도 적당해야 해요.”

전통의 현대화, 생활화가 어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양정은 대표가 답했다. 한국적인 색을 담은 생활 속 소박한 물건들을 적당한 가격대로 만들어 많은 사람이 전통을 가까이 여길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양정은 대표의 진심 어린 마음이 그녀의 여가식미에도 그대로 묻어났다.

사람마다 추억은 다르겠지만 보자기를 생각하면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감쌀 때의 고운 손길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매무새를 다듬는 따뜻한 마음이 그려진다. 때로는 포장지로, 때로는 가방으로. 보자기가 품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알아보고, 우리 전통의 멋과 현대적인 미감을 더해 보자기의 가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람이 있다. 한국의 전통 색을 담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호호당의 양정은 대표를 북한산 자락이 보이는 청운동의 작업실에서 만났다.

글 소효령 사진 장호





餘

세대를 잇는 습관, 독서

글을 좋아합니다. 듣는 것보다 읽는 것을 좋아하고, 말하는 것보다 글로 써서 마음을 표현하는 데 더 익숙한 편입니다.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두세 번 이상 읽은 책은 제일 좋아하는 곳에 밀줄을 긋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읽는 책, 멋지게 사업을 일구어 가는 선배의 조언이 필요할 때 읽는 책, 좀 웃고 싶을 때 들춰 보는 책, 마음까지 녹여 주는 근사한 요리가 먹고 싶을 때 보는 요리책 등 내 마음속의 리스트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유품 중 가장 위로가 되는 것 역시 책입니다. 책의 도입부에 그 책을 사거나 선물 받은 날의 기억을 적어 둔 엄마 덕분에 책을 펼치면 종종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듭니다.

讀書

소설부터 실용서까지 양정은 대표의 독서는 폭이 넓었다. 아이에게 이 근사한 것을 물려주고 싶어 책 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한다.

暇

평생의 일터, 호호당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누군가 저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면 어제가 오늘, 오늘이 내일 같은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나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슷비슷한 모습의 매일이 꽉 찬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을 챙기고, 5시에 출근해 호호당의 하루를 이리저리 준비합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는 8시부터 퇴근 때까지는 본격적으로 그날의 일을 해 나갑니다. 늘 이렇게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몇십 년간 이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의 순간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꼭 해내고 싶은 일들이 있고, 함께 하나의 그림을 그려 나가는 직원들이 있어 ‘비슷비슷한 매일’이 제게는 늘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好好堂

호호당에는 현대적인 색감의 보자기를 비롯한 아기자기한 생활용품이 있다.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한복도 선보일 예정이다.

食

매일의 안주

출근이 빠른 대신 퇴근은 늘 5시에 합니다. 퇴근과 동시에 아들과 시간을 보내며 저녁밥을 만듭니다. 오랜 친구인 남편과 저는 매일 저녁 맛있는 요리 한두 가지에 그날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술을 골라 놓고 술잔을 기울이는 시간을 하루 중 가장 행복한 때로 꼽습니다. 아이의 하루, 우리 부부의 하루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아이의 저녁밥을 제외한 우리 부부의 저녁 식사로는 늘 ‘안주’를 만듭니다.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메뉴를 고르고 만드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빠르게 만드는 한 그릇 안주는 하루를 잘 지낸 우리 부부에게 주는 소박한 칭찬과 같이 느껴집니다.

飯酒

우리 식문화를 공부한 그녀는 술에 있어서는 와인, 전통주를 가리지 않는다. 어떤 술과 요리인지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듯 보였다.

美

돈케

엄마가 사용하시던 돈케를 무척 아깁니다. 엄마는 돈케에 가족들 한복을 보관하셨습니다. 엄마 약혼식 한복, 녹의홍상을 비롯해 아빠의 한복과 오빠와 저의 어릴 적 한복을 보자기로 감싸 넣어 두셨습니다. 작은 메모도 곁들여져 있지요. 오래된 돈케 안에 우리 가족의 추억,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기분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 안에 저의 한복과 남편의 한복 그리고 아들의 한복을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 오래된 것들을 좋아해 오래된 것들에 담긴 이야기에 늘 귀 기울이게 됩니다. 엄마가 반질반질 윤이 나게 닦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차곡차곡 쌓은 가족의 이야기를 보며 마음에 키운 것은 ‘따뜻함’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도 전 그런 소박하지만 따뜻한 것들에서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움을 봅니다.

家寶

호호당 한구석에 놓여 있는 돈케에서는 오래된 물건이 주는 정감이 느껴졌다. 앞으로도 이 돈케는 대를 이어 전해지며 이야기를 쌓아갈 것이다.

추억을 저장하는 방법,

〈러브레터〉속 폴라로이드 카메라 SX-70

아날로그 필름의 감성을 담은 카메라 앱이 최근 유행이다. 소중한 순간을 따뜻하게 남겨 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우리는 어김없이 아날로그 방식을 찾게 된다. 〈러브레터〉속 히로코도 그런 기대를 담아 이츠키에게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보낸다.

글 정재광

아날로그 방식으로 추억 찾기

어느 겨울날, 감기로 콜록대는 이츠키에게 이상한 편지가 도착한다. 편지는 조심스레 안부를 물어 오는데, 이츠키는 발신인 난에 적힌 히로코라는 이름이 낯설기만 하다. 묘한 호기심에 답장을 써 보는 이츠키. 몇 번의 편지가 오가는 동안, 이츠키와 동명이인인 중학교 동창생 이츠키(남)의 연인 히로코가 잘못 보낸 것임을 알게 된다. 히로코는 이츠키(여)가 기억하는 이츠키(남)에 관해 물어 오고, 이츠키(여)는 잊고 있던 추억 속 이츠키(남)를 꺼내 본다.

어느덧 개봉한 지 20년도 넘는 이 영화에는 그 시절의 온도를 간직한 아날로그 방식이 가득하다. 스마트폰이 아닌 손목에 주소를 메모하고, 손으로 쓴 종이 편지를 우편함에 넣어 보낸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담아 독서카드에 그 이름을 적어 보기도 한다. 그 가운데 특히 관객의 눈을 붙잡은 것은 히로코가 이츠키에게 보낸 폴라로이드 카메라였다. 그녀는 추억을 촬영해 달라고 부탁한다.

추억을 현상하는 카메라, 폴라로이드 SX-70

중학생 시절 육상대회 날 좁은 카메라 앵글을 통해 이츠키(남)를 바라봤던 이츠키(여)는 이제 또 다른 카메라를 들고 운동장으로 향한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을 때마다 묻어 두었던 그 시절의 애뜻함이 되살아난다. 사진을 찍는 이츠키(여)에게는 과거의 사랑을, 그 사진을 받을 히로코에게는 사랑의 과거를 안겨 주는 카메라. 바로 폴라로이드 SX-70이다.

폴라로이드 SX-70은 1972년 출시된 접이식 즉석카메라다. 일반인들이 보다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조작이 간단하게 개발하고, 하나의 시트에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인화지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고급 수첩을 연상케 하는 클래식한 디자인이 매력으로, 폴라로이드가 대중적으로 보급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제는 단종된 지 오래된 모델임에도 만나 보기는 어렵지 않다.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특유의 감성에 힘입어 여러 영화나 CF에 단골 소품으로 등장한다. 촬영용으로 사용하는 애호가들도 있다. 전용 필름도 구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다른 카메라의 필름에 필터를 끼고 사용하는 불편도 마다하지 않는다. 추억을 현상하던 〈러브레터〉속 모습을 기억하는 국내 관객들 덕분에 한국에서는 특별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여전히 일상을 채색하는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라는 말은 즉석카메라를 가리키는 보통명사처럼 쓰인다. 그런데 사실은 동명의 광학 기기 제조업체에서 1948년 출시한 세계 최초 즉석카메라의 상품명이다. 사진관을 거치지 않고 촬영 직후 필름을 인화할 수 있다는 점은 당시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지속적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카메라와 필름을 내놓으며 1980년대까지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디지털카메라의 등장 이후 즉석에서 사진을 본다는 고유의 장점을 내주게 되었고, 결국 2008년 폴라로이드사는 즉석카메라와 필름의 생산 중단을 발표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가 했던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지금까지도 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 디지털 사진이 점점 선명함을 쫓는 데 반해, 아날로그 특유의 색감과 온도를 선호하는 이들 사이에서 오히려 수요가 늘고 있는 것. 특히 이국적인 느낌을 담고자 하는 해외여행자에게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일상 속에서 유달리 예쁜 색으로 칠해진 순간은 추억이 되어 남는다. 폴라로이드는 여전히 일상의 순간을 추억의 색으로 물들이며 오늘을 기록해 주고 있다.



Love Letter

+PLUS TIP. 지금 먼저 볼 수 있는 폴라로이드 카메라



폴라로이드 원스텝2(POLAROID One Step 2)
1997년 출시한 모델의 디자인을 살리면서 정체성을 유지하되 사용성을 개선한 후속작이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필름 잔량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즉석카메라 중 가장 큰 사진 사이즈를 자랑한다.



라이카 소포트(LEICA Sofort)
독일 명품 카메라로 유명한 라이카에서 최초로 선보인 즉석카메라. 전차 군단을 담은 심플하고 직선적인 외형으로 누구나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셀프 촬영', '피플&파티', '액션&스포츠', '이중노출' 등 다양한 모드를 지원한다.



후지필름 인스탁스(FUJIFILM Instax)
후지필름이 1998년 론칭한 즉석카메라 브랜드. 미니, 와이드, 스퀘어 등 라인업을 다각화하며 즉석카메라 시장을 주도한다. 파스텔 톤의 미니 시리즈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고, 최근에는 동영상 촬영 후 프레임 선택이 가능한 스퀘어 SQ20을 출시했다.



curation 2
새해의 물건



스마트 시대를 연결하는 차세대 이동 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가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사용해 움직이는 1인용 이동 수단을 말하는데, 자이로센서 및 가속도센서와 같은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모빌리티로도 부른다. 각종 센서와 몸의 움직임으로 이동하는 세그웨이류, 전동휠을 포함해 최근에는 전기 모터를 장착한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이 대중

화되고 있다. 전기에너지를 사용해 친환경적이고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시속 25km까지 속도를 내기 때문에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보급되고 있다. 2020년에는 스마트 모빌리티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서울시에만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한다면 <백 투 더 퓨처>의 호버보드로 출퇴근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Aju & Style

“홀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

아주, 더 높이

일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 되어 주곤 합니다. 최근의 콘크리트는 삭막한 회색빛 편견을 뒤바꾸며 우리 사회에 특별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얼마든지 이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새롭게 맞이하는 1년이라는 시간에 나만의 긍정적 가치를 부여할 용기를 선물해 줍니다. 이러한 용기를 가슴에 품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공동의 비전을 달성하는 협업의 시대를 맞이해 볼까요? 서로를 긍정하는 눈빛과 기꺼이 격려하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차이 또한 우리의 비전 속에 품어지게 됩니다.

콘크리트, 상상은 현실이 된다

라틴어 콘크레투스Concretus에서 유래한 콘크리트는 ‘함께 성장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소재다. 콘크리트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고층 건물을 짓고 공간을 무한정 확장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은 사고의 폭을 넓혔다. 그리고 여전히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는 콘크리트와 더불어 삶과 인식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삭막한 회색빛 편견을 뒤집으며 친인간적, 사회적 소재로 거듭나고 있는 콘크리트와 함께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그들이 붙여넣는 가치가 콘크리트의 세계를 더욱 아름답고, 유연하며, 가치 있게 만든다.

글 유재원

더 브로드 뮤지엄The Broad Museum은 ‘장막과 둥근 천장The Veil and the Vault’이라는 혁신적 콘셉트를 아름다운 곡선으로 구현해 로스앤젤레스의 새로운 랜드마크 자리매김하며 콘크리트의 아름다운 미래를 선보이고 있다.

© Iwan Baan - The Broad Museum, LA



콘크리트, 그 무궁무진한 가치

우리는 ‘콘크리트’라 하면 가장 먼저 차가운 회색빛 도시를 떠올리지만, 콘크리트는 사용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창조적인 소재다. 처음부터 정해진 형상이 없기에, 자유자재로 변형 가능한 무한한 확장성은 ‘콘크리트Concrete’의 어원 속에도 깊숙이 깃들여 있다. 라틴어 콘크레투스Concretus에서 유래한 콘크리트에는 ‘함께 성장하다’, ‘더불어 살아가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실 우리는 콘크리트의 발달로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냈다. 이뿐만 아니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공간을 무한정 확장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콘크리트는 줄곧 우리의 삶과 인식의 성장을 도와준 친인간적, 사회적 소재인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콘크리트를 두려워한다. 콘크리트가 몸에 해로운 것이라는 혹은 위험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편견은 생각보다 많은 이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자연의 소재인 돌가루와 물을 섞어 만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멘트와 배합수, 잔골재 및 굵은 골재, 그리고 성능

개선에 필요한 혼화 재료를 적정 비율로 섞어 만든 혼합물이다. 이 말인즉 구성물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환경친화적이 될 수도, 디자인적 심미감을 높일 수도, 새로운 기능을 더할 수도 있는 유연한 재료라는 의미다. 결국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콘크리트를 만들 것인가?’, ‘콘크리트를 활용해 어떤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 우리가 콘크리트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에 따라 콘크리트는 얼마든지 말랑말랑해질, 아름다워질, 이로운 가치를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더 아름답게, 더 유연하게, 더 이롭게

“본래 콘크리트는 구조적 성능이 좋고 값이 싸 도시 인프라 구축에 널리 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사회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난 시기에 이르러서는 콘크리트의 다른 장점을 발굴해 새로운 가치를 발전시켜 가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심미감, 친환경성, 기능성 등 콘크리트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산업 윤기원 연구개발담당임원은 오늘날 콘크리트의 개념이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기본적 성능, 기능과 더불어 특정 관점에서 인간이 부여하는 가치가 콘크리트라는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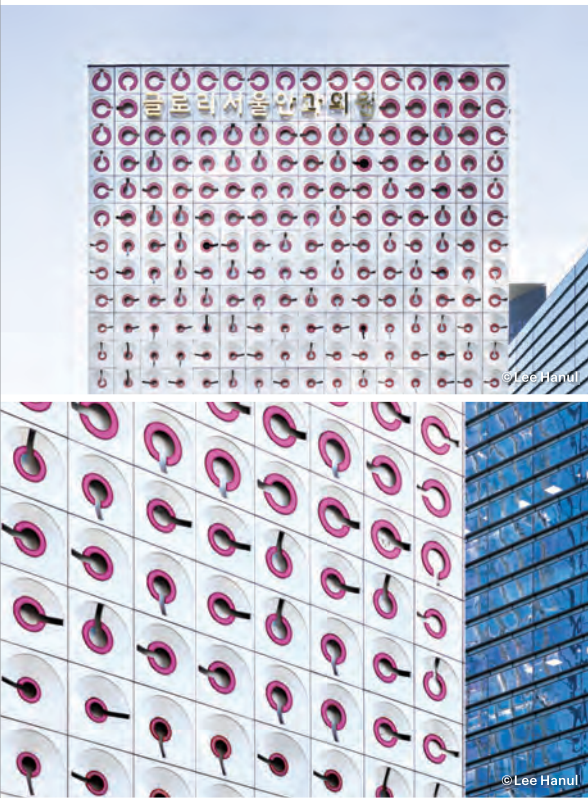
재의 의미를 결정짓습니다. 가령 아주산업에서는 신축 아파트나 건물에서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문제가 되었던 포름알데히드를 분해할 수 있는 공기 정화 콘크리트와 저탄소, 저발열 콘크리트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은 회색빛 삭막한 도시라는 편견을 뒤집고자 온도 변화나 빛의 세기에 따라 색상이 변화하는 기능성 컬러 콘크리트도 선보였죠.** 콘크리트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끊임없이 변화,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건설 자재로서의 콘크리트에 친환경성, 심미감 등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접목해 개발한 특허 상품이다. 이렇게 본다면 콘크리트는 더 나은 가치를 위해 꾸준

히 변화를 거듭하며 우리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친근하고 이로운 소재라 하겠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의 콘크리트 연구, 개발은 건축 시장에서 기존 콘크리트가 지닌 한계로 지적되던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대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RYSE Autograph Collection 호텔의 가구와 소품들은 콘크리트의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 준다. 기능성 가구의 소재는 튼튼한 내구성을, 다양한 디자인 소품은 개성과 친밀함을 품은 채 고객을 맞이한다. 세운상가의 아웃도어 퍼니처 작업 또한 콘크리트로 구현 가능한 조형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례다.

*특허명: 공기정화 기능을 갖는 콘크리트 조성물, 특허공개번호 10-2010-0084808, **특허명: 온도감응 색상변화 콘크리트 조성물, 특허등록번호 10-0890863



글로리아나, 서울 강남



롯데파크LoL Park, 서울 중로



편견에 도전하는 UHPC

한계를 뛰어넘어 개발된 초고성능 콘크리트인 UHPC(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는 기존 콘크리트에 고성능 감수제, 강섬유 등을 혼합해 개발한 차세대 콘크리트다. UHPC는 한 번 설치하면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탁월한 내구성을 지닌 외장재인 동시에 뛰어난 유연성으로 비정형, 곡선 연출을 가능하게 한 창의적 디자인 소재로서 다채로운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나무로 제작하던 전신주를 콘크리트로 바꾸며 출발한 아주산업은 아파트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던 1980년대, 콘크리트파일로 건물의 기초를 쌓으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처럼 아주산업은 콘크리트의 창조적 혁신에 앞장선 기업 DNA를 바탕으로 최근 UHPC 연구, 개발, 보급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AJU-UHPC*는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콘크리트로, 철근 없이 건물의 구조체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물론 고도의 유연함으로 3D 패널 등 원하는 디자인을 구현하기에도 적합하다. 기존의 사각형 일색, 밋밋한 건물의 한계를 넘어

구조체뿐 아니라 디자인 재료로서의 가능성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가구와 내장재, 소품, 예술 작품의 소재 등 콘크리트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

AJU-UHPC는 이미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그 다양한 쓰임을 증명해 보였다. 먼저 외장재로 사용되어 색다른 심미감을 연출한 사례를 보자. 강남에 위치한 글로리아나와의 리모델링 작업에 사용된 AJU-UHPC는 아름다운 조형성을 갖춘 3D 구조의 외장 디자인 패널을 통해 콘크리트 건물을 둘러싸고 있던 ‘색막하다’는 편견을 과감하게 뒤집었다. 더불어 내장재로 사용되는 경우, 내구성이 뛰어날뿐더러 기존 콘크리트로는 구현이 어려웠던 섬세한 질감을 표현해 예술적 경지에 도전하고 있다. 종로의 게임 전문 경기장인 롤파크LoL Park의 세밀한 활자 표현은 기존 콘크리트는 물론 기타 다른 소재로도 구현이 어려웠던 특별한 질감을 생생하게 살려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AJU-UHPC는 콘크리트를 건축 재료로만 한정해 온 기존의 흐름을 깨기 위한 하나의 도전적 시도입니다. 튼튼한 구조체인 동시에

우리가 생활에서 접촉하고 활용하는 친밀한 가구이자 아름다운 디자인의 재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사용자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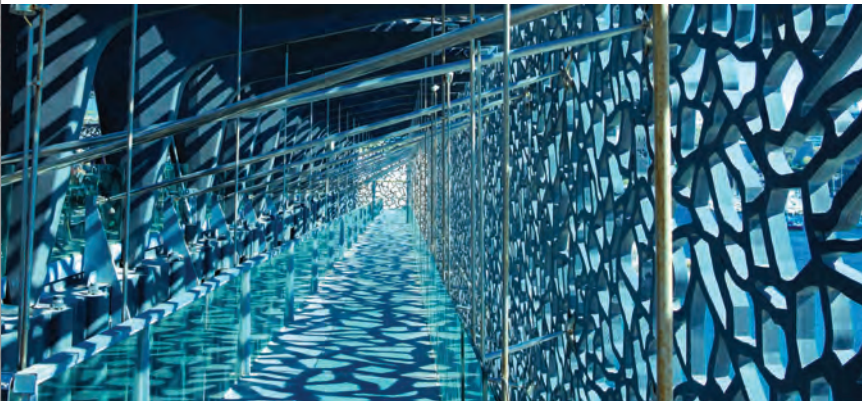
아주산업 이종현 매니저는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로 그 성능과 가능성을 검증받은 AJU-UHPC가 앞으로 더 다채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에 즐거움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콘크리트 랩과 AJU-UH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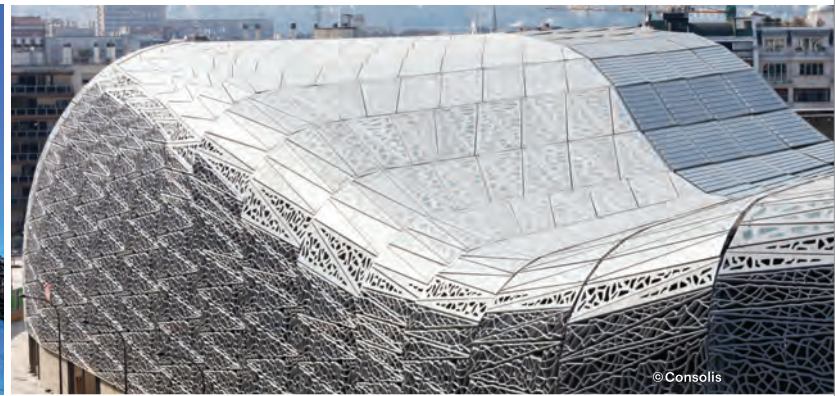
2018 아주산업이 론칭한 UHPC 브랜드 ‘콘크리트 랩’은 자체 개발한 초고강도 콘크리트 상품 AJU-UHPC를 아심 차게 선보였다.

AJU-UHPC의 가장 큰 특징은 일상 온도에서 짧은 시간 안에 양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UHPC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4배 이상 강하다는 게 장점이지만, 그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12~24시간 동안 고온에서 증기양생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AJU-UHPC는 고온양생 과정 없이 상온에서 4~6시간이면 초기 경화가 시작되어 28일 기준 150MPa 이상의 압축강도 실현이 가능한 쉽고 실용적인 UHPC다.



뮤세뮈CEM, 프랑스 마르세유



장 부앵 스타디움Jean Bouin Stadium, 프랑스 파리

콘크리트로 상상하는 활기찬 미래

해외에서도 UHPC는 특별한 아름다움과 기능을 유감없이 뽐내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인 뮤세Musée des Civilisations et de la Méditerranée이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인 뮤세의 그물 모양 외관은 유럽뿐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이슬람 문화가 뒤섞이는 장이었던 항구 도시 마르세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조화의 의미가 담긴, 아름답지만 표현이 결코 쉽지 않았던 이 독특한 곡선은 뮤세 건축 과정에서 UHPC를 통해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다. 또한 뮤세의 UHPC 소재는 프랑스 남부의 강렬한 태양과 해안가의 짜고 습한 바닷바람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구성, 프로방스의 햇살을 흡수하며 변화하는 독특한 색채의 아름다움을 널리 인정받으며 총괄 건축가 루디 리치오티Rudy Ricciotti에게 2017 컬러콘크리트웍스 어워드 1위라는 영예를 안겨 주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뮤세와 같은 혁신적 UHPC 건축물은 더 이상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이미 어느 정도 UHPC 대중화가 진행되어 다채로

운 일상 공간뿐 아니라 스포츠 경기장에게까지 UHPC를 활용해, 튼튼하면서도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해 내고 있다. 이러한 도시 경관의 변화는 지금, 우리 가까이에서도 하나, 둘 일어나고 있는 경쾌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콘크리트에 대한 편견에 맞서며 더 좋은 가치, 더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콘크리트 개발에 힘쓰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과 가장 친밀한, 그리하여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콘크리트니까요.”

윤기원 연구개발담당임원은 이 말에 덧붙여 요즘 구상하고 있는 다양한 풍경을 이야기했다. 햇빛을 흡수해 건물의 자가 에너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콘크리트, 계속해서 인간, 날씨와 반응하며 색이 바뀌는 카멜레온 같은 콘크리트 도시. 친환경 콘크리트부터 UHPC까지, 도전과 혁신을 반복해 온 콘크리트의 역사를 참고해 보면 이러한 풍경이 아무래도 상상에 그칠 것 같지는 않다. 콘크리트의 변신은, 우리 삶의 적극적인 동행은 우리에게 또 어떤 창조적 에너지를 전해 줄까? 콘크리트와 더불어 우리의 미래 또한 즐거운 변화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가치에 따라 진화하는 콘크리트



공기 정화, 저탄소, 저발열 콘크리트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감온, 감광 콘크리트



기능성은 물론 심미성까지 두루 갖춘 초고성능 UHPC

협업의 시대,

모두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

2019년에 이어 도래할 2020년대는 은퇴가 늦어진 베이비붐 세대부터 그들의 자식 같은 밀레니엄 세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 일터에서 만나 공동의 비전을 달성해야 하는 협업의 시대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상사들은 너무 답답해!”와 같은 불만은 잠시 넣어 두고, 어떻게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협업’을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 아닌 즐겁고 창조적인 여정으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 다 함께 시작해 보자.

글 유재원 일러스트 민지홍



2019년, 협업의 시대가 온다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시대에 쓴 점토판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한다.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버르장머리가 없다. 말 세다.” 그뿐인가.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조차 젊은이들을 향해 혀를 찼다고 한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게 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이처럼 세대 차이는 우리 사회에 주어진 아주 오래된 난제다. 특히 2019년 새해에 이어 도래할 2020년대는 다양한 세대가 같은 일터에서 함께 일하게 되는 독특한 시기로, 직장 내 세대 갈등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은퇴가 늦어진 베이비붐 세대와 386세대,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는 한 직장, 한 팀에서 만나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의 비전을 달성해야 한다. 여러 기업 전문가들은 조직 내 세대 차이로 인해 새로운 갈등 구조가

형성될 것을 우려하며, 이들이 과연 공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아주의 경우,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실시한 전사 연령 대 조사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임직원의 2%, 386세대가 8%, X세대가 30%, 밀레니엄 세대가 60%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다양한 세대의 조화와 공존은 물론, 새로운 시대의 주역인 밀레니엄 세대가 활약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기업문화, 새로운 리더십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화성에서 온 선배, 금성에서 온 후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세대 간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배 세대(베이비붐 세대, 386세대)와 후배 세대(X세대, 밀레니엄 세대)는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일

을 대하는 태도에서 거의 정반대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먼저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자. 선배 세대는 조직과 개인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후배 세대는 조직과 개인을 철저히 분리해서 사고한다. 선배 세대는 고도 성장기에 조직 생활을 경험했기에 조직의 성장은 곧 적절한 임금과 보상, 가정의 평화, 사회적 인정 등 개인의 성장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IMF의 후유증 속에서 성장해 치열한 취업 전쟁을 치러 낸 후배 세대들은 겨우 취업 문턱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내 집 마련을 하기는커녕 월급 받는 족족 학자금 대출을 갚거나 월세를 충당해야 하는 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소득이 낮은 첫 세대다. 직장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배 세대가 받았던 수준의 보상이 불가능한 후배 세대는 조직에 대한 헌신을 무의미하게 느낀다.

일하는 방식에서도 두 세대는 전혀 다른 태도를 견지한다. 선배 세대의 경우, 주로 투입Input을 중요하게 여긴다. 근면과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치기에 직장에 오래 머물수록, 근무 시간이 길수록 더 나은 성취를 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후배 세대는 과정보다 결과, 투입보다 산출Output을 중시하며 투입 시간보다 결과물의 질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차이는 업무 속성과 수행 방식의 차이로부터 비롯된다. 선배 세대가 실무자로 일할 당시는 해외 선진 기업의 기술을 습득하고 따라잡는 것이 대다수 국내 기업의 미션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근면·성실하게 오랜 시간, 많이 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업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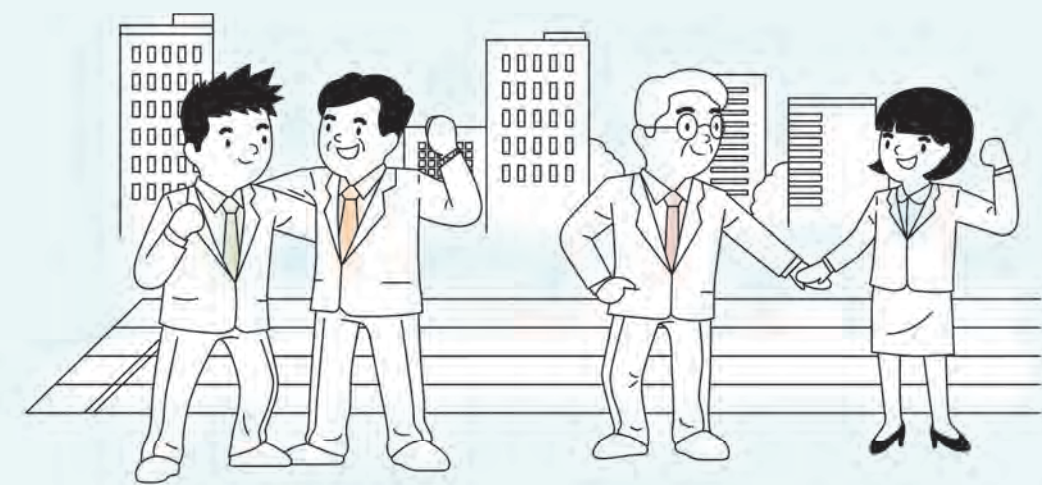
프라가 갖춰지고 난 오늘날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배 세대에게 주어진 미션은 조금 다르다. 이들은 시장을 선도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 창의와 혁신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방식, 정해진 형식과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성질이 있기에 두 세대는 갈등을 면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밀레니엄 세대는 일터에서 좋은 연봉을 받으며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싶어 하며,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와 있고 정당한 승진의 기회가 보장되고 정기적인 인정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밀레니얼 세대가 일터에서 원하는 것』(박영스토리, 2017)의 공동 저자인 제니퍼 딜Jennifer J. Deal과 알렉 레빈슨Alec Levenson의 말이다. 이들의 반문에는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가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 일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이전에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 심리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일을 성실히, 잘 해내고 싶고 그에 따라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조직은 다양해진 구성원의 차이점이나 일시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에 주목하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요구를 아우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아주좋은날』 편집팀은 아주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기업이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 기업문화 관련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협업의 시대에 기업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가치를 고민해 보기로 했다.

“우리는 모두 좋아하고 신뢰하는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고 그에 따라
정당한 성장의 기회, 합리적인 피드백, 적절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열린 분위기, 개인의 성장, 이로운 가치의 실천

『새로운 리더가 온다』(피플벨류HS, 2018)의 저자 이호건, 엄민영은 조직의 세대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 규범, 스타일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동시에 양 세대 간에 상호 합의된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선배 세대는 그들의 규칙을 후배 세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후배 세대 역시 선배 세대의 지혜를 존중하려 노력하며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합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진솔하고 격의 없이, 진심을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

이와 같은 열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수평적 조직 구조 및 문화를 정립하려는 움직임이다. 후배 세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원하고, 선배 세대 역시 후배 세대와 편안하게 소통하며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수직적 의사소통 구조를 수평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로 직급과 호칭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아주는 2013년부터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직급 체계를 탈피해 '매니저'로 호칭을 단일화했다. 반응은 생각보다 즉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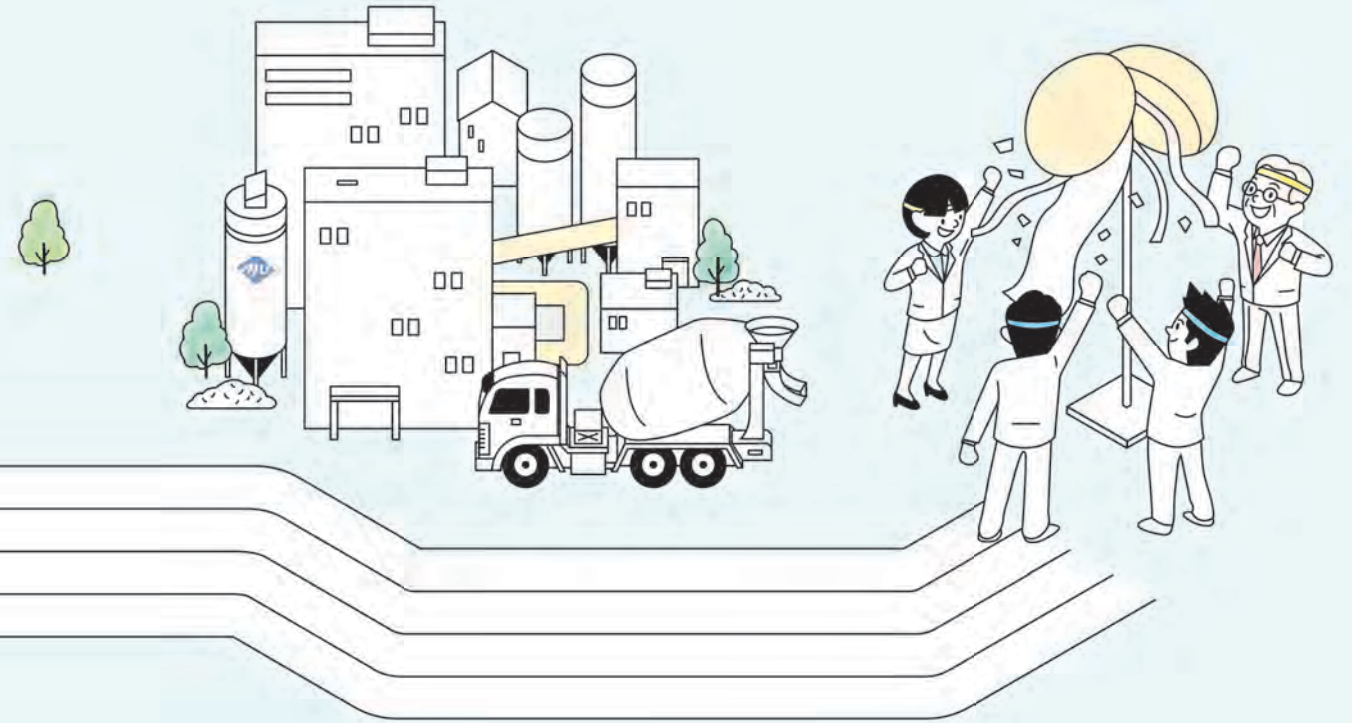
“호칭을 통일한 이후 수평적 분위기가 형성되니 낮은 연차의 직원들이 전보다 더 자유롭게 창의적 제안을 하곤 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평등한 호칭으로 서로를 대하다 보니 자연스레 수평적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아주는 이와 같은 변화에 안주하지 않고 2018년 '상무보-상무-전무-부사장' 등으로 이어지는 임원 직급 체계 역시 폐지,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는 또 한 번의 기업문화 혁신에 나섰다. 직원이 아닌 임원 직급의 체계를 폐지한 것은 국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이러한 아주의 행보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밀레니엄 세대 후배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선배 리더들의 리더십 혁신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더불어 수평적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창출되는 개인의 창의성을 집단의 창의성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그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해졌다. 최근 여러 기업은 웹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예컨대 유럽 전자상거래 업체인 잘란도Zalando는 주요 프로젝트가 출범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상사, 동료, 타 부서 직원에게 앱을 통해 자유롭게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맥킨지글로벌인스티튜트MGI 역시 앱을 통해 상사, 동료, 부하 직원까지 피드백에 참여하는 성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아주는 지난 2018년 하반기 사내 그룹웨어를 개편하며 협업 클라우드 솔루션인 Microsoft Office 365를 도입, 협업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여러 문서 도구(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를 아지트 내에서 클릭 한 번으로 설치, 손쉽게 사용 가능하게 한 것은 물론,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한 팀원들의 공동 업무, 스카이프Skype를 활용한 실시간 모바일 화상 회의, 팀별 홈페이지를 통한 업무 공유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협업이 곧 일상이 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스마트 워킹 시스템의 핵심은 업무, 협업의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밀레니얼 세대의 일에 대한 관점, 물리적 투입이 아닌 생산성, 효율성, 유연성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도 긴밀하게 연관된다. 일과 함께 개인의 삶과 성장 또한 중요해지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조직은 각 세대의 개인 생활 역시 섬세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는 개인과 조직,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공유하며 합의된 가치관을 완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는 2016년부터 유연근무제를 순차적으로 도입, 전 세대 구성원이 자신의 근로 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근로 시간을 '아주 DIY(Design It Yourself) 타임'이라 명명하고 하루 또는 주 단위로 자율적으로 조정해 근무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계열사 업종 특성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근무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아주인들은 시간 중심이 아닌 일 중심으로 업무 시간을 배분하고 서로의 개인 일정을 존중하는 가운데 협업을 모색하려 한다.

또한 오늘날의 조직은 사회 공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조직 구성원의 내적 동기를 한데 모을 수도 있다. 복잡, 다각화된 오늘날, 사회를 향한 따뜻한 실천이야말로 모두가 합의 가능한 공동의 비전이다. 성장만을 위해 달려온 선배 세대에게는 공익에 대한 아쉬움이, 가성비보다 가심비를 중시하는 후배 세대에게는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다. 비용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조직은 일의 사회 공헌적 요소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내적 동기를 심어 줄 수 있다. 가령 GE의 경우, 에코매지네이션Ecomagination 프로그램을 도입해 친환경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와중에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기관차, 발광다이오드, 친환경 고효율 홈빌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며 놀라운 성취를 냈다. 이 경험을 토대로 GE는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직원들의 내적 동기가 회사의 실적과 긍정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의 조력자가 되어, 같은 곳을 향해

“경영자 혼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답은 사람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을 가능케 하는 힘은 경영자가 아닌,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아주 문규영 회장의 말이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오늘날의 직장인들은 짧은 시간 동안 업무 환경과 일하는 방식의 급격한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조직이 마주하는 환경 또한 마찬가지다. 시장의 상황은 급변하고 변화의 양상은 불확실하며 날이 복잡해진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권위적이고 제왕적인 리더, 경직된 조직은 도태되기 쉽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연성은 열린 마인드로부터 출발한다. 답은 늘 다양한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 속에 숨어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조직과 리더는 구성원의 각기 다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끌어 내고, 그 차이를 유연하게 조율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힌트를 발견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다른 생각과 다른 생활 문화는 차이와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일을 통해 성장하고 능력 있는 동료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직장인 모두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타인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서로가 가진 생각의 차이를 좁혀 가는 과정이 모두가 공유하는 이상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라는 믿음을 지닌다면, 우리는 충분히 서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본 원고는 『새로운 리더가 온다』(이호건, 엄민영, 피플벨류HS, 2018), 『밀레니얼 세대가 일터에서 원하는 것』(제니퍼 딜, 알렉 레빈슨, 박영스토리, 2017)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AJU NEWS

「아주좋은날」 2019 NEW YEAR

Volume 52 아주 뉴스

www.aju.co.kr



「아주」 2019 기해년, ANT 경영으로 혁신하는 한 해!

2019년 1월 2일 아주는 시무식을 실시해 활기찬 새해 업무의 시작을 알렸다. 변화와 혁신을 중시하는 아주의 시무식답게, 예년과 달라진 분위기가 눈길을 끌었다. 가장 큰 변화는 시무식 본 행사를 마친 뒤 경영진 오찬, 각 사 시무식으로 이어지던 관례를 경영진 조찬, 시무식 본 행사의 순서로 개편한 것이다. 조찬을 마친 경영진이 출근하는 직원들과 좀 더 가까이에서 새해 인사를 나누는 긍정적인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가 만들어 낸 변화였다. 경영진은 시무식 슬로건 ‘2019 기해년 ANT 하면 돼지!’가 새겨진 호박설기떡을 청남빌딩 각종 사무실 앞에서 손수 나누며 직원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주고받았다. 거리상 직접 전

하지 못한 떡은 전국의 사업소로 배송해 모든 아주인과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신경 썼다. 또 다른 변화는 매년 시무식 행사를 여는 AJU 인재다움의 분위기를 바꾼 것. 레드 카펫이 깔린 시상식 분위기로 연출해 2018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우수 사업장에 선정된 아주산업 상암사업소와 광명사업소, 아주IB투자 투자전략팀, 핵심가치 실천리더의 영광을 차지한 아주산업 광명사업소 김용관 매니저, 아주산업 광주사업소 손세욱 매니저, 아주IB투자 전석철 수석팀장, 아주오토리움 한영수 본부장, 아주호텔엔리조트 이용창 팀장이 레드 카펫의 주인공이 되어 자리를 더욱 빛

내 주었다. 다음으로 2019 신입 임원 소개가 있었고, 문규영 회장의 신년사가 이어졌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변화와 혁신은 우수한 인재 한 사람의 힘으로만 이룰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모두가 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만의 도전과 혁신 정신을 담은 ANT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아주를 만들어 갑시다.” 오래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저성장 분위기 속에서도 아주답게, 새로운 도전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한 문규영 회장은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주만의 일하는 방식, ANT 경영을 실천해 나가자는 격려와 더불어 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강조했다.



「아주」 아주 오랜 이웃 사랑의 결실, 구릉산 청남공원 준공식

아주의 오랜 이웃 사랑이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푸르른 결실을 맺었다. 지난 2017년 12월 26일 착공에 들어간 ‘구릉산 청남공원’이 11개월 만인 2018년 11월 15일 준공식을 가진 것. 아주와 중랑구의 인연은 2013년故 청남 문태식 아주 창업주가 중랑구에 400억 원 상당의 사재를 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던 1960년대 중랑구에서 사업을 시작한 아주가 지역 주민의 관심 속에 탄탄히 성장한 만큼, 지역사회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을 실천한 것이다. 이후 2015년 아주는 기존 부지에 인접한 부지를 추가로 기부했고, 2016년 현재 공원 부지가 국토교통부 환경문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공원 조성 기금 1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그 결과 총 5만 5,173㎡(약 1만 6,700평) 규모의 구릉산 청남공원 조성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본래 불법 시설물로 인해 산림 훼손이 극심했던 인근 환경이 등산로와 도심 속 아이들을 위한 자연체험 공원이자 주민들의 쉼터로 거듭났다. 자연생태교육장, 유아숲체험장, 캠

핑체험장, 배나무 과수체험장, 모험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구릉산 청남공원은 지역 주민들의 여가를 책임지는 즐거운 공간이 되어 줄 것이다. 준공식 당일, 아주 문규영 회장 및 아주 관계자와 중랑구 류경기 구청장 및 중랑구 관계자들은 감격과 감사의 인사로 오랜 인연이 완성해 낸 결실을 축하했다. 문규영 회장은故 청남 문태식 아주 창업주의 사업보국 이념을 되새기며 구릉산 청남공원이 오롯이 이웃의 행복을 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류경기 구청장은 “지도층의 사회 기여와 책임을 강조하지만 말이 아닌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좋은 공간을 주민을 위해 선뜻 기부해 주신 것은 지역사회에는 빛과 소금 같은 존경스러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로 아주의 묵묵한 실천에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도 아주는 기업이란 늘 이웃과 사회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故 청남 문태식 아주 창업주의 뜻을 묵묵히 실천해 갈 것이다.



+ 구릉산 청남공원을 완성하기까지

- | | |
|------|--|
| 2013 | 故 청남 문태식 아주 창업주 중랑구에 400억 원 상당의 사재 기부 |
| 2015 | 아주 기존 부지에 인접한 부지 추가로 기부 |
| 2016 | 현재 공원 부지가 국토교통부 환경문화사업 대상지로 선정, 총 5만 5,173㎡(약 1만 6,700평) 규모의 구릉산 청남공원 조성 프로젝트 시작 |
| 2017 | 12월 26일 구릉산 청남공원 착공식 |
| 2018 | 착공 11개월 만인 2018년 11월 구릉산 청남공원 준공 |



【아주IB투자】국가대표 벤처캐피털,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2018년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2층 홍보관에서 아주IB투자의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기념식이 열렸다. 이는 아주IB투자가 지난 7개월간 고군분투해 얻어 낸 값진 결과였다.

아주IB투자 벤처투자 1본부 양광선 본부장 의 회사 소개, 김지원 대표이사의 상장 계약서 서명 절차가 차례로 진행되었고 마침내 정

각 9시 최초 상장가를 확인한 뒤 김지원 대표이사가 코스닥협회로부터 상장패를 전달받았다. 김지원 대표이사는 아주IB투자의 성장 스토리를 소개하며 남다른 자부심을 표현했다.

“아주IB투자는 국내 최초 벤처캐피털 회사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1조 2,000억 원의 자금을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투자해 회사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도 안정적인 수익으로 보답해 왔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한국 시장을 넘어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인 미국 보스턴에 진출, 14개 투자기업 중 11개를 나스닥 시장에 상장시키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코스닥 시장에서 48개 기업을 상장시키며 거래소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주IB투자 30여 명의 임직원은 김지원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이제껏 아주IB투자가 걸어온 길과 지난 7개월의 준비 기간을 회고했다.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 임직원들은 일희일비하기보다, 더 먼 미래를 위한 비전과 사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애썼다. 그 결과 “2020년까지 운용액을 키워 가장 오래된 벤처캐피털을 넘어 최고의 벤처캐피털이 되겠습니다”라는 김지원 대표이사의 목표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을 모두 함께 성취해 냈다. 큰 박수로 감격을 나눈 이들은 마지막으로 방명패에 “국가대표 벤처캐피털 아주IB투자!”라는 서명을 남기며 계속되는 도전으로 완성에 갈 미래를 다짐했다.



【아주지오텍】튼튼한 파트너십, CMC와 MOU 체결

아주지오텍이 2018년 9월 13일 오전 10시 청남빌딩 17층 혁신룸에서 이탈리아 건설업체 Cooperativa Muratori & Cementisti (이하 CMC)와 MOU를 체결했다. CMC는 유럽 내에서 가장 먼저 출범한 건설 협동조합으로 2017년 기준 이탈리아 건설 분야 4위를 기록한 탄탄한 조직이다.

아주와 CMC의 업무 협약은 GTX-A Line Project 중 Open TBM 공사 및 대단면 Shield TBM 공사 수주를 위해 이루어졌다. GTX-A Line Project는 일산 킨텍스에서 삼성역까지 37.4km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구축 공사로, 시공에 Open TBM 공법이 적용된다. CMC는 이 분야에서

풍부한 실적은 물론 다수의 시공 노하우까지 보유하고 있는 든든한 파트너다.

아주지오텍 안종국 대표이사와 박성진 관리부문장, 문준배 기술영업본부장을 비롯해 CMC Ivano Andreis Head Technical 매니저, Andrea Ciamei Asia Pacific Regional 매니저가 참석한 가운데 아주와 CMC는 업무 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CMC Ivano Andreis Head Technical 매니저는 “이번 MOU를 계기로 CMC와 아주지오텍이 기술과 경험을 나누어 이 프로젝트 외에도 많은 것을 함께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두 회사는 GTX-A Line에 이어 GTX-B, GTX-C Line Project, 김포~파주 고속도로 등 향후 예정된 대구경 기계화터널공사 수주에도 공동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각자 보유한 TBM 장비를 적극 활용,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수주에 힘쓰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주】14회 사랑의 부싷돌, 한결같은 이웃 사랑 실천

2018년 12월 5일 14년 차를 맞은 사랑의 부싷돌 행사가 어김없이 열렸다.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아주만의 연탄나눔 프로그램, 사랑의 부싷돌은 매년 아주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지속되는 중이다.

이번에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지역을 중심으로 문규영 회장부터 아주산업, 아주IB투자, 아주호텔앤리조트, 아주지오텍, 아주네트웍스, 아주오토리움 등 전 계열사 임직원 50여 명이 골고루 참여했다. 더불어 ‘아주

좋은 꿈터’의 아동, 청소년 10여 명도 힘을 보태 여느 때보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지난 14년간 사랑의 부싷돌은 약 91만 장의 연탄을 이웃에게 배달했다. 한 가구당 200장을 전달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4,500가구, 1만 명 이상의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한 셈이다. 2018년 동대문구에서 시작된 온기는 여느 때와 같이 광명, 고양, 수원, 파주, 제주 등 각 계열사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까지 퍼져 나가 이웃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지켜 내고 있다.

【아주산업】초고강도 콘크리트UHPC의 선두 주자, 콘크리트 랩 론칭



초고성능 콘크리트 UHPC(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는 해외에서 이미 건축 내·외장재를 비롯해 토목, 아웃도어 퍼니처, 아트워크 등에 활용되고 있는 고성

능, 친환경 콘크리트 제품이다. 국내 건자재 분야의 혁신을 주도해 온 아주산업은 2017년 UHPC 연구개발에 착수, 상온양생만으로 단시간에 탈형이 가능한 동시에 압축강도 150MPa, 고강도 내구성 구현이 가능한 아주만의 초고성능 콘크리트 AJU-UHPC를 개발했다. 더불어 AJU-UHPC 전용 브랜드, 콘크리트 랩을 론칭해 고객과 접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 회색, 백색 2종으로 출시되는 AJU-UHPC 제품은 20kg의 소포장 형태로 자체 영업망 및 전문 유통망을 통해 판매된다. 콘크리트 랩은 국내 최초 상온양생 초고성능 콘크리트 개발에 이어질 지속적 혁신을 통해 국내 최고 건자재 기업이라는 아주산업의 오랜 자부심을 지켜 나갈 계획이다.

【아주큐엠에스】ICT 대상 수상 2018 대한민국 기업대상 시상식



2018년 12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8 제4회 대한민국 기업대상’ 시상식에서 아주큐엠에스가 ‘ICT 대상’을 수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며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아주큐엠에스는 단순 반복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가 대신 처리해 주는 자동화 기술을 통해 수상, 다가올 미래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아주】2019 아주 캘린더

2019년 아주 캘린더는 판화 작가 김란희의 작품과 함께한다. 김란희는 동판 위에 석고를 부어 화사한 색채의 그림을 찍어내는 플라스터 캐스팅 판화 기법으로 자연과의 대화를 표현했다. 겨우살이, 사철나무, 꽃잔디, 붓꽃, 연꽃, 백일홍 등 각 계절에 걸맞은 식물을 판화로 표현한 2019년 아주 캘린더는 자연을 관조하는 여유와 화사한 색채의 온기로 우리의 일상에 힐링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SPECIAL GIFT

「아주좋은날」 2019 신년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소감을
ajupr@aju.co.kr로 보내 주세요. 선정되신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문화상품권

1. 오늘과 다른 내일, 생활에 활력을 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즐거운 노래를 듣거나 마음에 담아 두었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에는 생기가 돌죠. 독자 후기를 보내 주신 네 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애플트리테일즈 도서



2.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선물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2012년 올해의 모험가 앨리스 테어 험프리스가 들려주는 20명의 위대한 모험가 이야기와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시와 꽃이 있는 컬러링 북, 아탈란 타와 떠나는 그리스 신화 등, 독자 후기를 보내 주신 네 분을 선정해 애플트리테일즈의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3. 여유와 휴식이 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바쁘게 일상을 보냈다면, 그만큼의 휴식을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유가 생긴다면 카페에서 차 한 잔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독자 후기를 보내 주신 네 분을 선정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Reader's Story

이번 호 「아주좋은날」에서는aju spirit 칼럼의 ‘몰입의 힘, 딥 워크’

기사를 관심 깊게 보았습니다.

그동안 사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몰입의 힘에 대한 중요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겠으나, 정작 딥 워크를 위한 실천 방법, 노하우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안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사를 통해 딥 워크의 소중한 가치, 의미를 이해하고 몰입과

집중의 다양한 형태, 올바른 실천 방법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근로 시간 단축, 워라밸 추구 등 몰입과 집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던 차에 딥 워크의 가치와 의미, 그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 이준임 님

한 손엔 메가폰, 한 손엔 기저귀 가방을 들고 남성들의 세계인

영화계에서 여성의 시선과 앵글로 영화를 제작한 박남옥 씨의

스토리는 과연 앞서간 선구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멋진 내용이었습니

다. 우리는 직장, 사회 생활을 하면서 거절당할까, 좌절할까 두려워 지레

먼저 포기해 스스로 낙오자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종과 희망을 주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예술과 문학,

인문학을 함께 테마로 하여 좋은 글을 보내 주시는 「아주좋은날」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박성주 님